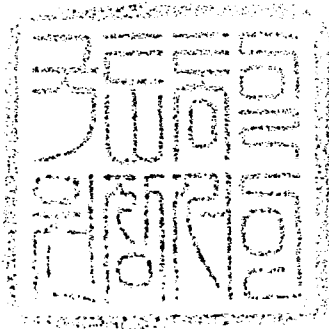


南北韓 統一戰略의 相衝點과 合一點의
對照分析을 통한 對備策研究

1973. 11.



이 報告書는 國土統一院 73年度 下半期
學術用役に 關한 最終報告書로 提出합니다

1973年 11月 日

研究機關：國防大學院 安保問題研究所

研究責任者：李 基 遠

目 次

1. 序 言	1
2. 南北韓統一政策의 歷史的考察	3
가. 北韓의 統一政策	3
나. 韓國의 統一政策	16
3. 韓半島統一의 基礎的 考慮事項	24
가. 人道的 諸 考慮事項	24
나. 經濟的 諸 考慮事項	28
다. 政治的인 諸 考慮事項	35
라. 軍事的 諸 考慮事項	40
4. 南北韓 統一戰略의 合一點과 相衡點	47
5. 對備策 : 새次元의 統一戰略構圖	64

1. 序 言

韓半島가 南北으로 分斷된 以後 이것을 單一化하기 위한 寸한 努力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努力은 적어도 7. 4 南北 共同聲明이라는 南北間의 劃期的인 合意를 成立시키기까지는 南北을 單一化시키기에 非妥協的이며 融通性이 缺고 實現不可能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既存의 統一努力의 悲循環은 大体로 다음 몇가지에 그 主要原因을 찾을 수 있다.

첫째로 南北間에 가로놓여 있는 基本的인 兩側面, 卽 單一民族이라는 民族的으로 單一意識을 形成해온 次元과 分斷 27年間 南北의 政治体制의 根幹이 되어온 自由, 共產의 對立的인 理念次元間의 關係에서 理念의 問題가 民族의 意識을 強하게 壓倒해 왔다는 点이다.

이것은 戰后 世界政治의 兩極化 構造에 의해서 더욱 부채질 되었으며, 韓半島가 極東政治 構造속에서 갖는 地政學的 位置로 말미암은 民族的 수난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理念的 次元에서 민감한 韓半島的 狀況에서 南北을 單一化하려는 努力은 名分的 価値에만 限定되기 마련이었다.

둘째로 南北間의 問題解決을 兩体制가 主導的으로 解決하려는 努力보다는 周辺強大國에 依存하려는 생각이 韓半島 政治構造를 支配했다는 点이다. 이것은 日帝解放에서 부터 強大國의 政治焦點內에서 韓半島 問題가 處理되었고, 또 第2次 世界大戰이라는 참戰에서 強大國의 絶對的 影響力이 卽 軍事的인 것은 곧 政治的인 것 - 世界 知識人, 政治人의 보편적인 思考行態에서 認定되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적어도 이러한 強大國의 概念이 70年代를 前後한 世界的인 새로
운 國家·民族自找의 思潮가 대두되기 까지 韓民族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숙명적인 要素였다고 볼 수 있다.

세계로 南北間의 單一化를 위한 努力으로서 政治的, 武力的 方法
에만 執着하므로서 非政治的인 接觸이나, 交流의 方法을 전혀 등한
시 하였다는 點이다. 이것은 적어도 南北의 새로운 統一要件을
形成하기 까지 相互의 相異한 理念에 依한 思考나 文化의 異質化
를 無視한 處事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以上 指摘한 要素들이 現在의 南北對話構造에서 決코 無視될 수
없는 事項임엔 틀림이 없다. 本 研究는 적어도 前記한 세 가지의
基準要素의 變化를 前提하고 南北韓 統一戰略의 合一點과 相衝點을
對照分析하여 그에 따른 對備策을 講究하고 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南北韓의 統一戰略을 歷史的인 觀點에서 考察하고, 이를 水平
面的 次元에서 檢討할 것이며. 둘째로는 이에 基盤하여 現在의 南
北韓 構造가 갖는 共通點으로 韓半島 外的狀況을 非統制的 要素로
서 合一點으로 보고, 南北間의 自體的 構造속에서 戰略目標 代置狀
況을 相衝點으로 보아서 이를 檢討하였다.

세계로는 이러한 南北間 統一戰略의 相衝點과 合一點의 對照, 分
析을 통한 對備策을 마련하였다.

2. 南北韓 統一政策의 歴史的考察

가. 北韓의 統一政策

北韓은 그들의 基本目標인 赤化統一을 達成하기 爲해서 對內 對外的인 條件이 許容하는 範圍內에서 尙 可變的인 政策을 諷使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北韓의 統一政策의 多樣性과 變化무상은 결코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時代的 狀況에 對한 論理的인 判斷에 立脚하고 있는 것이다.

麥澄원 北韓의 統一政策은 時代別로 1948年 ~ 1953年, 1954年 ~ 1959年, 1960 ~ 1961年, 1962 ~ 1969年, 1970年以後로 区分되고 第一段階는 武力合併戰, 第二段階는 形式的心理戰, 第3段階는 實用的 政治戰, 第4段階는 暴力的 革命誘導戰, 第5段階는 實用的 協商戰으로 規定될 수 있다.

(1) 武力合併政策 (1948 ~ 1953年)

이 당시 南北間에는 政治, 經濟, 軍事, 對外關係등의 諸側面에서 顯격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韓半島의 日帝植民地化政策은 南韓의 農業化와 北韓의 工業化라는 産業構造的 偏重을 심각케 하므로서 北韓의 産業能力이 南韓보다 월등히 앞서게 되었던 것이며

둘째, 尙시 軍事援助를 迅速하게 供與할 수 있는 中共과 蘇聯의 共產大國을 隣接하고 있는 戰略上的 好條件은 南韓의 그것에 比較해서 상당히 有利했으며 게다가 蘇聯의 衛星國擴大政策은 北韓을 政

者들의 強力한 保登가 되었다는 點이다.

세째, 北韓은 中共이 國府軍과의 싸움에서 勝利하게 됨에 따라 소위 그들의 共產主義이 데오르기의 普遍性原則에 의거하여 強力한 軍事援助를 獲得할 수 있었다.

네째, 南韓은 北韓과는 正反對로 美軍이 全面撤収하여 軍事的 空白狀態가 惹起되었으며 게다가 國防軍의 兵力, 장비는 北韓과는 對照할 수 없는 弱勢에 놓여 있었다.

다섯째, 한편 李承晩大統領은 對美外交에서 가끔 武力에 依한 北進統一論을 들고나와 二次大戰의 莫大한 犧牲을 經驗한 美國으로 하여금 공포감을 느끼게 함으로서 오히려 北進統一政策의 實現을 抑制키 爲한 美國의 對韓軍事援助의 輕減만을 招來하게 되었다.

또한 南韓國民들의 對共警戒心은 極度로 취약하여 南勞黨을 비롯한 各種共產地下組織들의 活躍이 活潑히 展開될 수가 있었다.

이러한 南北間의 狀況의 懸絶한 差異는 強大國의 戰后處理過程上의 再分配協商이라는 國際情勢에 편승하여 마침내 6. 25事變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같은 與件에 기인하여 北韓은 1950年 5月 19日 非公式軍事會議에서 武力에 依한 南韓侵攻이라는 軍事政策을 決定하게 된 것이다.

(2) 形式的 心理政策(1954 - 1960.4)

이 당시의 國際間的 努力構造는 美蘇間의 공포의 勢力均衡化政策으로 因한 (Balance of power) 兩極體制로 緊張이 極度로 高潮化되어 있었다.

同時期에 北韓은 暴力을 止揚하고 心理的이고 政治的인 路線을 採択했다.

이러한 金日成의 政策路線은 南日이가 1954年 6月 15日 제네바會談에서 提案함으로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北韓의 統一政策의 轉換에 動機가 된 것으로는 주로 韓國內 部情勢와 北韓 및 共產圈情勢라는 두가지 변수에 起因한다고 볼 수 있다.

韓國內部情勢로서 들수 있는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사실이 있다.

韓國內部情勢로서 들수 있는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사실이 있다.

즉 ① 6.25事變이 후 國民의 對北憎惡感과 對共警戒心이 高潮되어 갔다는 點, 따라서 共產黨의 地下組織이 拍滅되었으며,

② UN軍의 계속주둔과 韓美相互防衛條約의 實踐的 強化와

③ UNCURK 를 위시한 各種國際的協力機構의 支援下에 戰災復旧가 착실히 進行되었다는 點이다.

北韓 및 共產圈情勢로서는

① 北韓은 戰后復旧事業 3 個年 經濟計劃에 專念함으로서 實踐 可能的한 統一政策에 신경 쓸 餘력이 없었으며

② 따라서 北韓은 休戰期間을 革命力량의 強化를 爲한 蓄力 期로서 活用하려고 하였고

③ 中共은 韓國事變으로 因하여 莫大한 戰爭損失을 당했었고

또한 人民公事가 失敗함에 따라 北韓에 대하여 실질적인 援助를 계속할 수가 없었고,

④ 「호르시초프」의 「스타린」格下運動은 一人支配體制를 強化, 固守하려던 金日成과 教条主義路線을 取하던 中共의 심한 반발을 일으켜 共産圏内部가 分열되었던 것이다.

(3) 実用的 心理戰 政策 (1960 ~ 1961年)

1960年 4. 19 학생의거와 더불어 北韓은 그들의 對南政策에서 重大한 轉換을 보게 되었다.

그들은 以前에 取했던 악독한 선전術을 中止하고 南韓國民에게 「어필」할 수 있는 一運의 平和統一案을 提示하면서 南韓內의 輿論을 환기시키려고 했다.

北韓은 60年 4月 27日 駐韓外國軍撤収, 外勢干涉없는 南北韓 總選, 統一을 為한 南北韓의 政黨, 社會團體등의 會議開催, 南北自由往來, 書信交換, 南北經濟代表者委員會構成등을 提議하였다.

또한 1960年 8月 14日 金日成은 「(1) 어떠한 外國의 干涉도 없는 民主主義的 基礎위에서 自由로운 南北總選舉를 실시할것. (2) 아직 南朝鮮當국이 自由로운 總선거를 받아 들일 수 없다면 過度的 措置로서 南北朝鮮의 聯邦制를 提議한다. 南北聯邦制란 南北朝鮮에 現存하는 政治制度를 그대로 두고 兩政府의 獨自의인 活動을 保障하는 同時에 兩政府代表로서 構成되는 最高民族委員會를 組織하여 南北韓의 經濟, 文化發展을 統一的으로 調節한다. (3) 萬一 上記 提案능을 南朝鮮當局이 同意치 않으면 南北朝鮮의 産業界代表로 構

成되는 純全한 經濟委員會라도 조직한다. ④ 南北朝鮮文化使節의 來往과 科學, 文化, 藝術, 體育等 모든 分野에서의 交流를 다시 한번 提議한다.

⑤ 南朝鮮에서의 美軍의 즉시 撤收를 要求하며 南北朝鮮 軍隊를 各各 10萬 또는 그以下로 縮少할것을 提議한다.

⑥ 이상의 諸問題를 協議하기 爲하여 南北朝鮮代表들이 평양이나 서울 또는 板門店에서 會議할것을 南朝鮮 當局과 政黨, 社會團體 및 個別的 愛國人士에게 提議한다」는 것을 發表하였다.

이러한 政策이 導出되게된 原因은 勿論 그들의 소위 革命的 시기가 到來하여 이땅에 革命的 氣운이 成熟했다는 판단에 입각했던 것이다.

그들은 南韓의 內部情勢에 着眼하여 학생들의 소요를 「에스카레이트」함으로써 南北關係를 協商무드로 전환시키려고 하였다.

이러한 統一政策의 轉換에 動機가 된 것으로는 60年代에 들어와서 東西間에 緊張이 解氷됨에 따라서 나타나게 된것 以外에 다음의 두가지 事項으로 크게 分類해 볼 수 있겠다.

첫째, 北韓 및 共產圈內部情勢의 추세에서 보면 ① 北韓의 戰災 復旧 3개년計劃事業의 完了. ② 숙청을 통한 政治的 不安要素 제거능을 들수 있으며 이러한 要因은 그들이 對南政策에서 일사불란한 動員과 힘(Power)을 과시하는데 確信을 주게된 것이다.

둘째, 韓國內部情勢의 추세에서 보면 ① 계속되는 학생소요 ② 경제침체, ③ 政治的 混亂, ④ 急進的 (中立的) 統一論 대두

(5) 政治的 「리더십」脆弱 (6) UN軍의 継続駐屯을 들 수 있다. 上記의 이러한 韓國側要因은 北韓으로 하여금 軍事的 도발을 통한 적화통일은 不可能하게 하지만 平和的인 政治的 手段을 통해서 는 그들의 赤化統一을 可能케 할 수 있는 요인이 될수 있는 것이다.

(4) 暴力的 革命誘導政策 (1962-1970)

이 단계에 와서는 聯邦制와 協商에 두었던 主안점을 다시 전환시켜 硬直的인 理念的 修辭을 使用하면서 南韓内部에 地下革命黨을 強化시켜 政治的 社会的 不安을 造成하여 南韓内部에 暴力的 革命을 誘導하려는 方向으로 政策을 取했다.

이러한 政策轉換은 金日成이가 1966年 10月에 있는 勞動黨指導者會議에 보낸 렛세지에서 볼 수 있다.

金日成은 統一問題와 南韓革命의 問題를 結付하여 “이러한 과업을 遂行하기 爲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北半部에서 不屈의 革命要塞을 構築해야 한다. 現時点에서 우리들의 革命鬪争과 産業化努力에 있어 가장 중요한 段階는 變化한 情勢의 諸要請에 符應하기 위하여 우리들의 完全한 社會主義建設計劃을 再構築하는 것에 있다.

특히 경제건설은 敵의 총공격에 対応할 수 있는 國家防衛의 構築과 併行토록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여 政策轉換을 分明히 하였다.

이러한 政策轉換의 明白한 증거는 金日成의 연설이 있은지 一年

이 지나는 동안 UN軍司令部가 「심각하다」고 規定할 程度의 事件으로서의 北韓의 武力的인 도발이 1956年과 比較해서 1000%의 增加率이나 되는 540件이 增加했다는 点에서 알 수 있다. 또한 1967年에 UN軍과 韓國軍은 124名의 戰死와 279名의 부상이라는 大災難을 겪고서 北韓工作員 224名을 殺害하고 50名을 체포했다. 韓國側도 22名의 警察과 民間人이 殺害되고 53名이 부상을 당했다.

1月21日에는 31名의 共產特工隊가 高位政治人士를 殺害할 目的으로 靑瓦台官邸 300야드 앞까지 아무런 阻止도 받지 않고 습격에 成功했으나 일촉즉발의 경우에 한명을 除外하고 모두 射殺되어 버렸다. 또한 11月에는 120名의 北韓特攻隊들이 暴力的 人民革命을 誘導하기 위해서 울진, 삼척지역에 침투되었으며 12月에는 게릴라戰의 最高戰略家인 崔賢이가 北韓民族保衛相으로 任命되고 게릴라特戰部隊인 124 特別人民軍隊가 形成되기도 했다.

이러한 北韓의 暴力的革命誘導政策에 動機를 提供했던 事項으로서는 크게 3가지 「카테고리」로 分類하여 볼 수 있다.

첫째, 國際間에 있어서는 60年代에 들어와서 殆勤하기 始作한 東·西解氷霧圍氣가 「케네디·호르시초프」간의 平和共存政策指向으로 더욱 發展되었다는 것이며

둘째, 北韓 및 共產圈內의 情勢로서 들수 있는 点은

- (1) 朝·蘇·朝·中共 相互協力條約이 1953年9月에 締結됨에 따라 過去보다 더욱 軍事的으로 安定感을 가지게 되었다는 点과,
- (2) 計劃經濟事業(第1次5個年計劃: 1957-1960, 7個年計劃:

1961 - 1970, 1967年까지를 3年연장)의 대체적인 成功은 소위 그들의 社会主義的 工業化의 基礎와 農業社会主義的 集團化를 達成할 수가 있었다는 点, ③ 흐르시초프의 对兩方政策의 失敗와 변덕스러운 行動은 蘇聯에 對한 北韓의 信念을 깨뜨린 結果가 되어 親中共路線과 더불어 결국 北韓은 对蘇依存關係에서 벗어나 보다 自主的인 統一路線을 성급하게 追求하지 않을수가 없었다는 点이다.

④ 中·蘇間에 国境을 둘러싼 紛争과 激烈한 理念的 紛争은 北韓으로 하여금 好戰的인 中共지향적이 되게 하였다는 点, 그 以外에 中共에 原爆開發은 한層 더 中共에 對한 信賴感을 부여 했다는 점을 들수가 있다. ⑤ 이리하여 南韓革命의 前哨陣地로서 北韓地域에 革命要塞를 구축하기 위하여 全人民 武装化, 全軍幹部化, 全国土要塞化, 裝備現代化라는 이른바 四大軍事路線을 決定하였다는 点이다.

세계, 韓國의 内部情勢로는 (1) 5.16軍事政府의 強力한 反共體制는 北韓이 4.19 학생의거와 더불어 그렇게도 조심스럽게 키워 놓았던 南韓内部의 共產組織과 그 同調者들 그리고 大規模의 간첩망을 뿌리채 뽑아 버렸다는 点이며, (2) 南韓의 제2차 경제개발 5개년計劃의 成長은 国民所得수준을 급격히 成長시켰으며 輸出품을 일으켰다는 点,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社会安定은 北韓側에 對해서는 確實히 不利한 要素가 되지 않을수 없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南韓의 政治·社会的 混亂증가는 對韓海外投資의 誘置之 어렵게하여 政府로 하여금 어쩔수 없이 純粹한 經濟的發展을 떠나서 우선 國防에 多 많은 경비를 轉用하지 않을수 없게 할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北韓은 우선 南韓内部의 混亂과 經濟發展의 鈍化

策動이 매우 시급했다는 점, ③ 1965年 체결된 韓日國交正常化條約은 北韓의 對日關係로 疎遠케 한 同時에 다른 한편으로는 韓日關係를 더욱 緊密히 (Essential) 하고 有事時에는 南韓에 對한 保鮮로서 作用할 可能性이 크게 되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이 韓日國交正常化條約은 日本이 南韓에게 必要한 補償을 支払함으로써 大韓民國政府가 韓半島의 唯一한 合法政府라는 點을 確認했던 것이기 때문이다. ④ 韓國은 經濟發展以外에도 外交 및 軍事面에서 前例없을 程度의 發展을 했다. 陸軍·海軍, 海兵隊가 越南에 派兵되었으나 國民들의 높은 反共意識이 이를 充分히 代替할 수 있었으며, 나아가서 韓國은 亞細亞同盟國들間에 主導的인 地位를 掌握하여 ASPAC의 主導的提案을 비롯해서 各種地域 協力關係를 確認하였다.

이와 같이 同期間中の 北韓의 統一政策은 비록 制限된 範圍內에서나마 그 目的을 達成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그러나 그들의 暴力 및 武裝共匪南派등과 같은 一連의 政策은 그 全體的인 效果가 長期的인 面에서는 非生産的이었다.

왜냐하면 北韓의 暴力化가 가열해질수록 美國의 對韓援助는 輕減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美軍의 撤収보다는 駐屯을 必然化 시켰기 때문이다. 즉 駐韓美軍의 장기駐屯과 韓國國民들의 對共적개심의 振作만 초래했던 것이다.

이러한 北韓의 露骨的인 暴力的革命誘導政策은 70年代에 들어와서 그 轉換이 不可避하게 되었다.

(5) 実用的 協商政策 (1970年 -)

70年代에 들어와서 北韓은 共產主義者들의 特有的 鬭爭精神을 그대로 지니기는 했지만 그들의 理想的 宣傳이나 도발적行動에서 以前보다는 離笑히 溫和한 態度로 나왔다.

예컨대 統一接近作業過程에서도 文化, 우편교환이나 家族訪問과 같은 實質的이고 可能的한 問題에 보다 集中하게 되었으며 延韓美軍撤収와 미친듯한 反美口號도 훨씬 부드러워 졌다.

또한 이러한 政策의 具体化과정에서도 韓國이 提議한 南北赤十字會談에 応하여 그 内面은 어떻더라도 外形으로는 離散家族의 苦痛과 슬픔을 解消해주는 作業에 參加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政治協商誘導政策의 指標는 金日成의 聲明에서 發見될 수 있다.

1971年 8月 6日 金日成은 「시아누크」歡迎演說에서 “(1)政黨, 社會團體, 民主人士들의 平和統一主張에 대한 彈壓中止, (2) 南北協商問題 등 朝鮮問題는 民族自身이 解決해야하며 (3) 우리는 民主共和黨을 包含한 諸政黨, 社會단체 및 個別의 人士들과 아무때나 接觸할 用意가 있다”고 하여 南北間의 政治協商을 開催할 것을 제의하였다.

72年 4月 27日에 金日成은 日本의 3個新聞社 言論人과의 會見에서 “美軍存続下에서도 南北政治會談은 可能하다”고 하였으며 72年 6月 27日에는 「워싱턴, 포스트」의 헤리슨 記者와의 會見에서 南北頂上會談의 可能性을 제의하였다.

또한 北韓外相 許淡은 71年 4月 12日 “(1)延韓美軍撤収 (2)雙方軍

의 10萬以上減縮 ③韓美·韓日條約등의 廢棄, ④自由총선에 의한 統一政府樹立, ⑤政治運動의 完全自由保障, 政治犯 無條件 석방, ⑥過渡的 措処로서 聯邦制 實施, ⑦南北交流(경제, 文化, 書信, 人士), ⑧南北政治協商會議進行“ 등의 8個項을 平和的 統一方案으로 提案했었다.

이와같이 北韓의 對南政策이 變遷하게된 것은 그들의 目的과 關係해서 볼 때는 우연한 사건이 계기가 된것이라기 보다는 變遷을 強要하는 根本要因이 作用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要因은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바, 첫째, 國際的 側面을 본다면

닉슨大統領은 1969年7月25日 우주인의 지구귀환행사를 끝낸뒤 곧 이어서 「팜」島에서 가진 記者會見에서 美國의 對亞細亞勢力均衡政策, 이른바 「닉슨·독트린」을 發表하면서 ① 亞細亞國家들은 對外依存度를 줄여야하며 ② 亞細亞國家들은 核武器의 威脅을 除外한 지역內의 軍事威脅에 對해서는 主体的으로 問題를 處理해야 하며 ③ 美國은 亞細亞諸國에 對해서 軍事援助보다는 경제원조에 重點을 두고 側面支援에 힘을 기울일 것이며 ④ 越南戰에서는 越盟이 平和를 交渉하는 것이 훨씬 더 그들의 利益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기대하며 ⑤ 美國의 亞細亞諸國과의 協力은 그들 諸國이 相互協力하고 地域的 機構을 發展시킬때 增大될 것이며 ⑥ 美國은 亞細亞의 平和를 위한 漸進的인 手段으로서 協商을 利用하는 것을 바린다고 말했다.

이러한 「닉슨·독트린」은 월남·오끼나와, 태국, 한국, 日本等地에

서 大規模의 美軍撤収라는 結果를 가져왔고 「닉슨」大統領의 中共 訪問을 통한 美·中共間의 和解, 美·蘇共存關係의 發展을 가져왔다.

또한 日本도 역시 「田中內閣」이 들어선후 積極的인 對中共親近 과 (對自由中國遠隔) 對蘇接近을 시도하여 高潮된 國際的現實인정 추세를 그대로 反映하였다.

이러한 國際情勢의 變化는 韓國問題는 全体韓國人 自身들이 解決 할 문제로서 強大國들이 한반도의 運命을 決定하는 흥정의 대상물 로서 取扱되게 내버려두기 보다는 南北韓 双方의 努力으로서 解決 되어야 한다는 분위기를 造成하였다.

특히 美軍撤収는 金日成의 한결같은 提案目錄의 第1位를 차지했 던 事項이므로 이는 金日成에게 상당히 鼓撫的인 것이었다.

둘째, 北韓 및 共產圈情勢에 依한 要因을 살펴보면 北韓은 60年代부터 추진하여왔던 四大軍事路綫에 의하여 速戰速決主 義에 대한 戰爭準備를 完了하였으며 또한 소위 3대 技術革命

(①重工業과 輕工業의 差異해소 ② 農業과 工業技術의 差異解消)

(③ 婦女子들의 가정노동의 重圧으로 부터의 해방)을 通하여 어느 정도나마 科學, 技術의 後進性を 벗어 났었다.

그러나 경제가 發展되고 政治體制가 強化됨에 따라서 内部的으로는 더많은 不安要素가 등장하게 되었다.

즉 1人獨裁의 金日成 偶像化 및 族閥政治의 強化는 相對的으로 政治的 不滿要因을 增加시켰으며 지나친 對南軍備競爭을 爲한 國防費 의 過重은 國民들의 日常消費生活을 極度로 內帑화시키는 한편 兵力 動員에 빼앗기는 人力으로 경제에 流用될 勞動力은 極度로 不足

하였던 것이다.

한편 지속적인 計劃經濟事業은 重工業을 위시한 軍需工業에만 치중했었기 때문에 北韓住民들의 福利 및 消費生活에 必要한 日用品은 極度로 不足하였던 것이다.

세째, 韓國情勢에 依한 要因을 살펴본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朴正熙 大統領의 第 25 周年 光復節 慶祝辭를 들 수 있다. 同慶祝辭에서 朴大統領은 北韓의 武力挑發即刻中止, 北韓의 UN 權威, 權能受諾등을 要求하고 南北間의 善意의 體制競争을 통한 人爲的障壁除去를 提案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南韓의 平和統一構想은 비록 北韓의 對南平和統一攻勢 및 暴力的革命的 二重性을 排擊하고 오직 통일은 平和的 手段에 依해서만 實現되어야 한다는 對北對應策으로 볼 수 있기는 하지만 北韓은 이러한 韓國側의 提案이 자기들이 계속적으로 主唱해왔던 平和的統一과 符合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南韓側의 提案을 積極的으로 活用하자는 心算으로 政治的 協商政策에 더욱 活氣를 더게 된 것이다.

또하나 지적될수 있는 것은 駐韓美軍撤収에 따른 韓國軍의 裝備現代化 및 韓國軍의 戰鬪技術 및 戰鬪能力의 向上과 非常事態宣言에 의한 内部整備強化 및 總力安保態勢確立은 北韓으로 하여금 이상더 戰爭을 통한 赤化統一의 可能性을 더욱 稀薄하게 했다는 點을 들 수 있다.

끝으로 지적될수 있는 重要한 原因은 南韓의 高度經濟成長에 수반된 많은 經濟的, 社會的 不作用은 그들이 만일 계속하여 平和的 統일을 指向하여 南韓國民들에 對하여 善者로서의 Image 를 순다면

그들이 말하는 南韓内部的 自發的인 人民民主主義革命이 반드시 到來할 것이라는 点이다.

따라서 그들은 政治協商에 社会的 各界各層을 代表하는 多務的會談 (Multilateral Negotiation) 을 誘導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나. 韓國의 統一政策

(1) 政府樹立~休戰 (1948 ~ 1953)

이 당시의 統一政策은 UN 監視下의 北韓만의 自由選舉와 暗黙的으로 나타난 北進統一이라는 二重的 性格을 띄었다.

48年 5月 金九, 金奎植氏와 같은 革新的 人士들이 金日成과의 政治協商으로 統一을 實現하려고 했으나 結局 失敗하자 當時 光復英雄으로 崇拜받던 李承晚博士는 그 余勢를 몰아 北韓과의 一切의 妥協을 排除하면서 그의 政治的 安定勢力基盤造成에 執念하였다.

李承晚博士는 우선 그의 政治權力的 強化를 위해서는 美國의 強力한 支援이 必要했으며 또한 獨立政府가 推進해야 할 온갖 課題를 위해서도 盟邦國과의 緊密한 關係維持가 必要했었다. 따라서 우선은 南北分斷을 忍苦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當時 政府는 美軍이 完全撤収함에 따라 38° 境界線의 防衛力이 弱화되자 무엇보다도 軍事的 危險을 크게 느끼지 않을 수 없었고, 經濟的側面에서도 日帝植民遺產을 그대로 물려 받아 重工業 施設이 以北에 偏在된 狀況에서 우선 農業爲主의 一次產業에서 出發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해서 李承晚博士의 統治權行使는 거의 美國

에 依存치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때때로 李承晩博士는 그의 leadership 行使에 있어서 民族主義的 氣質과 國民에 對한 強壓的 權威行使를 위하여 武力에 依한 北韓收復論을 表示하기도 하여 (1948. 8. 15 정부공포) 美國의 統韓問題誠意促求와 國民의 對北警戒心を 환기시키기도 했다.

따라서 當時의 UN 監視下의 北韓總選論의 動機는 첫째, 太平洋戰爭에 莫大한 犧牲을 強要당했던 美國의 平和熟望에 起因한다고 볼 수 있고, 둘째로 南韓의 北韓收復 自信心不足이며 세계, 極度の 社會秩序紊亂과 政治的 不安定 및 政治權力の 弱화, 네째, 獨立政府가 解決해야 할 當面課題의 山積, 다섯째, 經濟的 無能力에 起因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그의 北進統一政策의 動機는 첫째 解放과 同時에 早速히 完全한 韓半島의 統一을 念願하는 國民의 心理的 要望, 둘째,

李承晩博士의 民族主義者로서의 Leadership, 또는 「카리스마적」 權威行使를 爲한 手段으로 活用하기 위해서 세계, 美國의 對韓誠意促求를 爲한 外交上의 攻術, 네째, 對北武力行使威脅을 통하여, 北韓의 UN 決議尊重促求試圖, 다섯째, 既往 벌린 戰爭에서 聯合軍의 優勢를 그대로 돌아부쳐 손쉽게 統一을 達成하자는 것을 들 수 있다.

統一政策의 이러한 根源을 살펴 볼 때에 當時의 主統一政策은 UN 監視下의 北韓自由遞進였고 從統一政策은 武力에 依한 北進統一政策이었다고 볼 수 있겠다.

(2) 1954 ~ 1960.4. (自由黨政府下)

이 때의 統一政策도 亦是 二重的이었지만 戰前과는 主從이 달라졌다. 즉 主統一政策은 平和的 方法이며 從政策은 武力政策이었다. 이같은 變化는 그 狀況의 差異에 起因한다고 보겠다.

첫째, 이 당시는 戰爭으로 産業生産이 全般的으로 마비 내지 萎縮된 基盤위에서 主로 美國의 無償援助를 背景으로 하는 戰災復旧事業이 急先務였고,

둘째, 國民의 前近代的 仙值觀, 戰後의 社會秩序紊亂, 汎濫하는 頹廢風潮等은 國民一體感을 妨害하였으며

셋째, 政府가 反社會秩序犯보다 反國家犯 索出作業을 보다 強化함에 따라 知性人, 政治家는 勿論 一般大衆까지도 統一問題에 對하여 疎外感을 갖게된 心理的 要因,

넷째, 1953年의 韓美相互防衛條約은 韓國의 先攻先爭을 否認하고 했다는 點

다섯째, 政治的 側面에 있어서, 李承晚大統領의 「카리스마적 리더쉽」 構築과 永久的執權을 爲한 改惡作業, 選舉不正, 國庫金의 政治資金으로의 流出, 公務員의 腐敗나 無事安逸觀등의 一腳의 事態는 國民의 政治的疎外感을 造成하여 오히려 政治的 分裂만을 惹起시켰다.

또한 北進統一政策을 獨裁體制의 維持, 強化, 延長을 爲한 政治的 手段으로만 利用함에 따라서 統一을 爲한 國民과 政府의 團合된 努力과 熱誠이 欠乏된 채 形式的이고 명분에만 그친 UN監視下의 北韓만의 自由總選만을 거듭 公表하는데 그쳤던 것이다.

여섯째, 經濟發展은 綿紡績(緞), 製粉, 製糖等의 消費財商品위주의

輕工業과 第3次産業의 發展만이 있었고 基幹産業 및 社会間接資本의 發展은 매우 미약하였다. 따라서 消費財工業이 정세하면 經濟成長率도 急激히 鈍化하는 현상이었다.

이러한 經濟力은 重化學工業을 中心으로 한 北韓經濟力에 比하여 훨씬 劣勢에 處해 있었다.

以上の 狀況에 依하여 自由黨政府은 武力統一政策은 美國에 對한 外交的 手段 乃至 對內的으로 權力強化手段으로 利用하려고 했던 것에 不過하고 UN의 名分을 빌어 正統性만 維持되길 바라면서 統一問題에 對하여는 實際로는 袖袖傍觀했던 것이라고 分析된다.

(3) 1960 ~ 1961 年 (第二共和國下)

政治人의 政治的 鬭爭이 아닌 4.19 學生義擧로 政權을 獲得하게 된 第二共和國의 統一政策은 UN 監視下의 南北韓自由總選舉政策이었다. 이 당시는 不過 1年余에 지나지 않는 期間이었지만 歷代統一政策의 變化中 가장 岐路에 處했던 緊張의 時期였다.

이른바 Carl Lowenstein 의 「新大統領」制를 構築하려고 했던 自由黨體制를 崩壞시키고 民主黨의 政權獲得을 可能케 했던 4.19 學生義擧는 學生들의 政治的 參與를 爲한 集會 및 示威의 自由와 國民의 廣範한 政治的 活動의 自由를 要求했었다.

別다른 價值가 없는 政治問題가 汎濫하는 學生데모의 물결 속에 크게 「크로즈·업」되기도 하였고 効果的인 社会秩序維持計劃은 獨裁를 爲한 準備作業이라는 공포감 造成으로 因하여 警察의 治安維持機能은 極度로 마비되어 버렸다.

國民의 權利要求에는 義務의 誠實한 履行約束이 包含된다는 의미에서 볼 적에 이 당시의 새로운 自由主義 불결은 自己拘束의 社會倫理性을 外面하는 放徒이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知識層, 學生 및 政界의 一部 進歩人士들은 以前에 그렇게도 禁止되었던 統一問題들 마치 녹이 무너져 쏟아지는 거센 불결과도 같이 제각기 論議하게 되었다.

60年 11月에는 學生들의 強力한 政治集團인 民族統一聯盟이 서울 大學校 學生들을 中心으로 結成 되었다.

이 團體는 南北間 書信往來, 學生交換, 學生會談, 親善體育大會, 學術討論會, 美術, 學文·創作의 交流등을 要求하였다.

12月 27日에 民族自主統一中央協議會는 經濟 및 文化交流를 政府에 要求하였다.

김용중 在美韓國問題研究所長은 韓半島中立化統一論을 提起하였고, 新民黨은 1961年 2月 16日 「對共宣傳強化, 言論人交流, 視察, 救護糧穀提供, 經濟交流 等の 統一問題를 研究하기 爲하여 國務總理下에 統一部 또는 統一局을 設置」할 것을 發表하였다.

그리고 「오스트리아」例에 依한 中立化統一論도 내두되기도 했다.

政治的 側面에서도 執政黨은 黨論의 整備보다는 分裂만을 초래하여 新民黨, 舊新民黨, 國民黨으로 조개졌으며, 또한 大統領制의 반발로 導入된 議員內閣責任制는 行政府의 對立法府隸屬化로 因해 國政處理는 政治人 各者의 私利와 黨利와 연루되어 非能率과 우유부단의 累積된 樣相을 보였다. 단순히 西歐의 議會內閣制만을 模倣한

政治制度는 그 運用過程에서 韓國固有의 土着的 機能이 나타나므로
서 制度의 理念과 機能은 相馳되었던 것이다.

이같은 政治体系는 政治權力の 分散과 指導者의 調整과 統制의 不
在現象만을 惹起시켰으며 極度의 政治的 混亂과 社会無秩序, 对北恐
怖感만을 낳게 되었다.

따라서 當時의 UN 監視下의 南北韓選挙論이라는 統一政策은 政治的
社会的 不安으로 因하여 統出하는 雜多한 統一論과 이에 편승하여
나타나는 北韓의 平和攻勢를 沮止하는 방편책으로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이 당시의 統一政策은 無秩序한 社会心理的 要
因, 指導者의 統制的 「리더쉽」不足, 學生들의 無分別한 政治參與의
副産物로서의 성격을 면하기 어렵다.

(4) 1962 ~ 1969年 (第三共和國下)

第二共和國의 거의 無政府狀態에 가까운 政治的 無能, 社会
的 混亂은 곧 謀種의 變革을 示唆하는 것이었다.

1961年 5月 16日 軍事革命에 成功한 軍部는 곧 「反共을 國
是의 第1로 하여 從來의 反共態勢를 再整備強化하고 共產主義와
對決할 수 있는 實力培養에 全力을 集中하여 国土統一의 轉機를
마련하며 美國을 비롯한 自由友邦과의 紐帶를 더욱 鞏固히
한다」는 革命公約을 發表하여 強力한 反共政策을 基底로 하는 對
UN政策을 取하였다.

따라서 革命政府의 統一政策도 公式的으로는 民主黨時代의 그것과
하등의 차이가 없이 「UN 監視下의 人口比例에 依한 自由選挙」를

그대로 踏襲했다. 단지 약간의 차이는 選舉監視團의 構成에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그 內容面에 있어서는 相當한 差異가 있다. 實際로는 「先建設・後統一」이라는 勝共統一政策을 指向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政策은 UN下의 自由總選에 依한 統一도 아니고 武力統一도 아닌 것이다.

그것은 70年代에 展開될 南北間의 體制競爭에 對稱하기 위한 實力培養政策이었다. 즉 政治, 經濟, 社會, 文化등의 모든 領域에 걸쳐서 北韓을 凌駕할 수 있는 體制發展을 꾀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統一政策을 構想하게 된 動機는 必然코 成就되어야 할 統一이 非상적이고 명분에만 그친 統一觀으로서는 영원히 不可能할 것이라는 위기감과 民族的인 自決感에서 연유되었을 것이다. 이리하여 一切의 統一論도 條件成熟의 미흡으로 금지되었으며 統一을 暫定的으로나마 未來指向的인 것으로 設定해 두고 國家發展에만 總力を 集中했었다. 즉 UN監視下의 南北韓自由總選以外에는 어떠한 統一方案도 있을 수 없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統一接近時期를 70年代 後半으로 定하고 統一方法을 南韓内部의 國民的 統合과 民主的 力量이 北韓을 凌駕하는 凌越狀態에서 民主主義의 勝利로서의 統一을 한다는 統一政策의 二元性을 伸縮性있게 堅持하고 있었다.

따라서 同期間中の 統一政策은 民主黨政府下의 解弛했던 反共體制를 鞏固히 하며 紊亂했던 社會秩序를 바로 잡아 政治的 安定과

經濟發展을 꾀한다는 内部堅實化政策의 一環으로서 대두되었던 것이다.

(5) 1970 ~ 現在

1970年에 들어와서 政府의 統一政策은 이미 各分野의 研究가 先行되었음으로 해서 여기서는 주요한 內容만을 提示하고자 한다.

1970年은 南北對話의 새로운 轉期가 되었음은 勿論이다. 8.15 光復節 慶祝辭에서 朴大統領은 北韓에 對해 「더이상 무고한 北韓同胞의 民生을 犧牲시키면서 戰爭準備에 狂奔하는 罪惡을 犯하지 말고 보다 善意의 競爭, 即 民主主義와 共產獨裁의 그 어느 體制가 國民을 더 잘 살게 할수 있으며, 더 잘 살 수 있는 條件을 가진 社會인가를 立證하는 “開發과 建設과 競爭”에 나설 用意가 없는가」를 묻고 싶다고 하였다. 이러한 宣言에 基盤하여 이듬해 8月12日 南北家族찾기 運動이 최두선 大韓赤十字 總裁에 의해 提議되고 이틀후 北韓이 同提議에 答諾하므로써 南北間의 첫 對話가 열렸다.

1972. 7. 4일 南北間의 歷史的인 7. 4 共同聲明의 合意를 우리 의 主導下에 이루고 南北間 調節委員長會議 및 調節委員會를 열어 本格的인 對話가 始作되었다. 이러한 統一努力에 步調를 맞추어 政府는 73年 6. 23 外交政策宣言을 하게되었고, 이러한 一聯의 努力을 通하여 一貫性 있는 統一政策을 淸명해 나왔던 것이다. 6. 23 宣言의 內容은 祖國統一에 關한 原則表明에서 부터 UN 同時加入, 門戶開放等의 새 차원의 統一意志와 實踐方案의 提起로서 評價되고 있다.

3. 韓半島統一의 基礎的 考慮事項

韓半島 問題를 理解하기 위해서는 必須的으로 前記한 歷史的 觀點에서 본 統一戰略의 變遷過程以外에도 人道·政治·軍事, 經濟 등의 諸 側面에서 본 水平的인 考察이 必要함은 말 할 것도 없다.

이러한 水平的 考察은 極히 皮상적인 次元에서 이루어 질수 밖에 없다. 그러나 大部分의 國際問題들 처럼 韓國問題 역시 複雜한 諸 要素들의 相互作用 關係에서 보아야 할 것이므로 以上の 水平的 考察이 有用할 것임이 分明하다.

이러한 研究는 已美 國內外 學者들에 依해 이미 研究된 分野이다. 따라서 筆者는 本章에서 比較的 韓半島 問題를 客觀的 立場에서 評價한 여러 사람들의 見解를 종합 整理 소개하고자 한다.

本章에서 紹介된 內容은 주로 美國의 韓半島問題 專門家인 James Vincent Young 氏의 *The Strategy of North Korea. Initiative or reaction* 등의 部分을 발췌 정리한 것이다.

가. 人道的 諸 考慮事項

疑心할 바 없이 韓民族은 單一民族이다. 共通의 文化, 言語 및 慣習으로서 連帶되어 있는 韓民族은 血統上에서는 人類學上 가장 類似한 사람들이다. 韓半島에서는 越南·泰國 및 東南亞의 大部分의 國家들과 같은 多樣한 人種, 多樣한 文化 및 少數言語集團의 結集은 없다.

韓半島에서 살고 있는 少數의 中國人과 日本人은 依次的으로 異

邦人으로 看做되어 왔다. 그리고 그들 異邦人들은 韓半島의 土着文化를 거의 받지 않은 独立的이고 特徵적인 生活形態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韓民族들사이의 同質性은 統一問題를 2가지 立場에서 생각할 때 重寶한 것이다.

첫째, 底邊에 깔려 있는 窮極적인 統一希望이 韓民族 全體의 共通的인 遺産이라는 것이다. 禹一 오늘날 韓半島의 2개의 거대한 對立的인 政治的 理念集團사이에서 어떤 和解希望이 있다면, 그것은 單一民族이라는 同質性에 있다.

둘째, 이러한 同種性的 民族的흐름은 특히 하나의 단위로서 外國人들에 대한 一般的인 反感으로서 나타나고 있다. 歷史를 通하여서 볼때에도 韓民族들은 非韓國人을 疑惑의 눈초리로 보아왔다. 中國人, 蒙古族, 滿洲族 및 日本놈의 韓半島侵略은 韓民族을 鎖國的이고 內向的으로 만들어 結果的으로 政府腐敗와 政治的停滯를 招來하였고, 國內問題上의 外國人解決을 爲한 試圖에서 우유부단한 態度를 一般化시켰다. 強大國들의 操作에 대한 심리적인 위압감과 自己運命에 대한 統制能力의 欠乏은 傳統的으로 韓民族이 遺産으로 받는 必須的인 部分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傾向은 - 頻繁한 外勢의 侵略 및 干渉을 받은 逆境속에서 불려받은 - 不調和나 갈등보다는 오히려 韓民族들의 團合을 招來했었다. 즉 團合을 爲한 基礎로서 外國人들에 대한 추상적인 反目傾向과 最終的인 統一의 可能性이 반드시 熟考되어야 한다는, 마치 磁力에 附着되는 것과 같은 合力을 造成하게 된 것이

따라서 最終的인 統一研究도 우리民族의 問題이며 또한 우리民族 自身들이 解決해야 할 問題가 된다.

韓半島問題를 效果的으로 取扱하는데 가장 重大한 課題로서 「人道的인 面」을 推定할 수 있고 또한 確實히 가장 심각한 面으로서 「離散家族問題」를 들 수 있다. 国土分斷의 結果로서 풀어진 離散家族의 數는 알지 못하고 있다. 一般的인 推算으로는 千萬程度로서 이러한 數字는 적어도 다섯사람중 한 사람의 比率로 自己와 가까운 사람(비록 순전한 家族은 아니지만)을 相對便 地域에 두고 있다. 韓國動亂중 南쪽으로의 大量避難으로 離散家族들중의 얼마가 再結合을 하였지만 이것은 極少數에 不過하였다.

예를 들면, 「부터폴드. 포우터」는 UN에서 1953年の 與南撤收問題를 討論하는 가운데 “193隻의 撤收를 爲한 輸送艦이 91,000名의 韓國人을 輸送했지만 輸送하지 못했던 사람은 헤아릴수 없을 程度의 부지기數”라고 말했다. 역시 「제임스. 필드」는 다음과 같이 記述하고 있다.

“「제레벨」提督이 元山の 共產治下에서 自己의 生命이 위태로운 市民들을 輸送하기 위하여 數를 세어모았을 때 予想했던 數千名보다는 엄청나게 많았다. 甲板에 7千名을 태우고 그리고 乘船能力을 꽉 채우고 나서도 乘務員들은 아직까지 약 2萬名 程度의 사람들이 必死的으로 철조망을 뚫고 나오려는 悲慘한 장면을 目擊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乘務員들은 群集한 避難民들의 數가 元山人口의 約 2倍가 된다고 決論짓게 되었다. 그리고 與南은 더욱 惡化狀態였다”

“與南에서는 元來 約 2萬5千名程度로 避難民을 予想했지만 이

생각은 곧 取消될 수 밖에 없었다. 「포오니」艦長은 輸送을 기다리며 野營하고 있는 5萬名程의 避難待機者를 発見했던 것이다. 그리고 함흥에서는 興南으로 가는 마지막 避難列車을 타려는 사람이 5萬名 以上이나 되었다. 이러한 數에 비추어서 韓國에 提供된 배는 너무 적었기 때문에 다음의 乘船날짜를 約束하지 않을 수 없었다. 避難民들은 不信感을 가지게 되었다.

LST의 乘船人員은 5千名以上으로 어떤 경우에는 10,500名에 達했다. 약 14,000名이 전세계 「메레디스·빅토리」號에 탔다. 스물세번에 걸친 沮止끝에 비로서 순간적인 出航에 成功했다.

「포니」提督은 3隻의 「빅토리아」型의 배와 2隻의 LST에 5萬名の 韓國人을 실어날랐다. 最終的인 記錄은 9萬千名에 達했다. 그러나 이 數字는 팔에 안긴 어린애나, 붓따리나 옷도리에 안겨있는 어린애는 세지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括目할만한 成果가 있었다고 해서 아무도 측배를 들수는 없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배의 乘船能力不足으로 많은 사람들을 뒤에 남겨 놓았고 그 中 動亂者들은 이 핑계 저 핑계로 沮止당했던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悲劇的인 記述로 보아 離散家族의 問題는 南北韓間의 會談 開催에 相當한 重要性을 갖는다. 이러한 離散家族의 問題는 広範한 政治的 反應을 惹起하는 것이 되며 또한 가장 可能的 解決의 妥協點을 보여주는 것이 된다. 이러한 感作적인 問題가 아마도 韓半島統一問題 自体에 重要な 열쇠가 될 것이다.

나. 經濟的인 諸考慮事項

韓半島의 經濟的 版圖을 論議할 때 北韓은 工業이 發達한 地域으로 그리고 南韓은 農業이 發達한 地域으로 말하는 것은 아마도 지나친 表現일 것이다.

南北韓 모두 自然的인 面에서는 農業이 主된 産業으로서, 農業對 工業의 區別은, 특히 보다 先進된 國家와 比較해 볼 때는 相對的인 問題에 不過한 것이다.

南北韓間의 農業基盤, 鉍物資源 및 可能한 水力發電의 有用性을 比較해 볼때 北韓은 南韓보다 더 工業的이라고 할 수 있고 역시 南韓은 北韓보다 더 農業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點에 비추어 보아 韓半島雙方은 1945年 以前에는 相互 補完的이었다. 특히 日帝가 南韓에서는 米穀增産政策을, 北韓에서는 重工業政策을 取한 것을 생각할 때는 더욱 그러 한 것이다.

韓半島가 地理的으로 分斷됨으로 經濟的 效果가 不利하다고 해서 北韓이 農業發展에 可能性이 없다든지 或은 南韓이 工業發展의 能力이 없다고 할수는 없는 것이다. 6.25 動亂以後 雙方(Both Countries)에 流入된 外國의 援助와 資本은 戰爭으로 황폐된 北韓工業의 再建과, 南韓이 10年間에 驚異的인 經濟成長을 이룩하는 基礎가 되었다.

그렇지만 兩地域의 經濟統合은 韓半島의 産業能力 및 軍事能力 (Power Capalility)을 確실히 增加시킬 것이며, 亦是 軍事準備에 消耗되어온 방대한 資源을 共同經濟를 보다 強化하는 領域으로 轉用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韓半島分斷이 가져온 經濟的 苦痛의

實際的인 程度를 特殊한 資源產出과 關聯하여 論議된다는 것은 그 結果가 害롭다고는 할 수 없다. 이리하여 南北間의 經濟交流가 統一을 爲한 一次 手段으로서 考慮된다는 것은 當然한 것이다.

經濟交流의 可能性을 分析할 때 南北間의 一般的인 經濟性向이 먼저 考慮되어야 한다. 北쪽에서는 6.25 動亂 以後부터 출근 重工業 發展에 力點을 두어왔다.

이러한 重工業優先策은 戰後에 타격 받은 損害의 程度와, 北韓의 가장 많은 自然資源의 潛在能力이 重工業分野에 있다는 생각을 해 볼 때는 當然한 것이 된다. 이러한 重工業分野의 努力集中은 輕工業分野 및 農業分野를 犧牲하게 됨으로서, 오늘날 北韓에서는 輕工業製品이나 消費財商品들은 오막살이와 같은 工場에서 生産되고 있다. 그리하여 北韓에서는 重工業分野가 매우 發達한 反面에 織物, 食料品 및 消費財와 같은 分野는 보잘것 없기 때문에 이러한 分野는 南韓과의 經濟交流에서 北韓은 利益을 얻을 可能性이 있는 것이다.

韓半島 相互間의 貿易은 北韓側으로 보아서 몇가지의 利點이 있다. 政治的으로 交易은 北韓의 國際的 地位를 높이기 될 것이며 특히 交易實行 以前에 韓國과 北韓間에 直接 會談이 있다면 더욱 北韓의 國際的 地位를 높이기 될 것이다.

北韓은 經濟交流를 全幅 支持함으로서 政治的 利益의 獲得이 可能하며, 또한 비록 疑心스럽기는 하지만 北韓商品의 品質이 韓國國民의 大多數에 影響을 줄 수 있는 機會를 얻게 될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더욱 重要한 것은 嚴格한 政治的 宣傳的 勝利보다 實質的인 經濟交流狀態下에서 北韓이 얻게 되는 着實한 經濟的 補償에 있다. 지난 10年의 後半期中 中共과 蘇聯으로 부터의 援助의 減縮과 莫大한 軍事費의 支出은 北韓의 참된 自立經濟發展을 妨害하였다. 韓國과의 交易은 이러한 妨害를 緩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또한 韓國과의 어떠한 「대당뜨」도 결국 北韓軍事費를 줄이게 되는 結果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北韓은 技術的이고 科學的인 定向을 가진 韓國의 豊富한 人力과 專門家交流를 통해서 北韓의 技術 및 科學의 不足狀態를 緩和시킬 수가 있을 것이며 또한 北韓의 심각한 勞動力不足을 보다 수월하게 할 수가 있게 된다.

이러한 勞動力 欠乏 重要産業에 「보틀넥」을 가져온 - 은 婦女勞働의 방대한 利用과 普通의 勞働者로서는 견딜 수 없을 程度의 高초를 强요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勞動力問題를 繼續的인 위기, 個人 人格崇拜, 千里馬運動이나 飛馬運動等으로 部分的으로 別충하고 있지만 종국적인 解決은 勞動力을 增強하는데 있다.

北韓과는 反對로 韓國은 優勢한 人力資源 - 많은 사람들이 만성적인 潛在失業下에 있는 - 을 保有하고 있다. 이러한 勞動力問題를 爲한 接近의 可能性은 비록 豫見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北韓經濟 計劃에 明白한 도움이 되는 것이다.

熟考해야 할 또 다른 重要한 經濟的 要素가 있다. 지금까지 南北韓은 25年 以上이나 分斷된 經濟體制를 維持해 왔었다. 그 結果 兩經濟는 兩立할 수가 없게 되어 왔다. 需要와 供給

및 利潤極大化의 動機에 依하여 支配되는 資本主義經濟의 固有의 힘은 共產主義社會의 그것과는 아주 상이한 것이다. 25年間の 分斷된 狀態下에서 제각기 發展해온 過程은 不協和를 더욱 助成하게 되었고 따라서 이러한 間隔을 融和시키는 것은 相當한 課題가 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經濟發展을 爲한 資源割當에도 相當한 差異가 있다. 北韓은 定立된 目標에 따라 國家意思決定機構가 마음대로 資源을 割當할 수가 있다. 그러나 韓國은 그렇지 않다.

例컨대 強制勞動은 北韓體制下에서만 可能한 것이다. 北韓은 「이데오로기」 및 民族的 矛盾의 兪충으로서 어느 程度나마 價格機構와 市場機構를 實施하여 왔으나 結果는 制限된 工産物에 不過하였다.

따라서 北韓의 大部分의 輸出品은 天然資源과 半製工産品이었으며 輸入品으로서는 資本財, 化學製品과 半製工産品이 主로 차지해 왔었다. 北韓의 國際貿易은 그들의 外交的 地位에 대한 國際的 認識이 不足함으로서 얼마간 妨害를 받아 왔지만, 한편 그들의 經濟交流에 제일 妨害가 되어 왔다고 생각할 수 있는 理念的, 政治的 諸問題는 解決되어진 것 같다. 例를 들면 「資本主義帝國」인 日本과의 貿易은 아마도 1963 ~ 1968年 사이의 北韓의 貿易收支均衡을 爲한 조처에 기인하는 것 같다. 이러한 것은 北韓의 經濟當局이 金保有高의 不足, 外換保有高의 不足 및 海外投資의 不足으로 直面하는 여러 가지 困難한 點을 考慮할 때 明白한 것이다.

北韓側으로는 經濟交易의 唯一한 不利點은 時間的인 面에서 交易 実行의 稽造인 것 같다.

時間이 지나감에 따라 韓國은 重工業分野의 激進的인 成長을 하게 되었다. 統計에 依하면 1970年代의 中, 後半期까지에는 韓國의 重工業產出量은 北韓을 凌駕할 것이며, 따라서 韓國은 모든 面에 있어서 優位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共產主義者들으로써는 弱勢의 立場에서 經濟交流에 대한 論議를 受諾할 수는 없으나 次期 10년이 지나가면 事情은 不可避하게 나타날 것이다.

上記의 分析에 立脚하여 볼 때, 北韓이 南北間의 經濟交流을 先制 發起했다는 것은 조금도 놀랄 것이 없다.

1954年 北韓外相 南一은 經濟 및 文化交流를 처음 提案했다. 이러한 主張은 약간씩 變하면서 週期的으로 反複되어 왔다. 北韓은 1971年 3月 13日 多角的인 經濟交流 및 協力 그리고 交易 增進을 內容으로 하는 8個項을 提起했었다.

그러나 韓國政府는 即時 이 提案을 確固하게 거부했다. 그러므로 왜 韓國이 北韓의 經濟交流提議에 激進的인 反對를 取하여 왔는 가를 分析하기 위해서 韓國의 經濟狀態의 여러가지를 觀察 觀해 보는 것이 研究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韓國經濟의 一般의 狀態는 過多消費와 벼락적으로 上昇한 景氣가 滿面하는 狀態이다. 客觀的觀察에 依하면 韓國은 世界에서 GNP의 成長率이 가장 빠르며, 輸出은 10億「달러」를 超過했다. 産業發達은 急激히 向上되어가고 있으며, 特히 鎡業 및 工作部分에서는 顯저하다.

失業은 許容할 수 있는 程度이고 軍事費는 一莫大하기는 하지

만 GNP와의 百分率로 보아서는北韓보다 현저하게 낮은 狀態였기 때문이다.

韓國經濟水準이 漸次的으로 向上될지라도 一般的傾向은 밝은 經濟展望을 充分히 保障할 수 있을 程度로 強力한 것 같다. 따라서 이러한 豫測을 한다면, 韓國은北韓과의 經濟交流에서 水力發電能力과 重工業蓄積이 增加되는 以外에 참된 의미에서 實質的利得이 거의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經濟交流을 專美上 反對하는 것은 政治的 理由 때문이다. 1960年初期以來로北韓의 經濟交流提案은 南北韓 雙方으로 부터의 相互對等한 代表者들로 構成되는 聯邦制樹立으로 集中하게 되었다.

이러한北韓의 提案을 反對하는 韓國의 政治的 理由는 聯邦制의 受諾은北韓의 對南赤化統一戰略을 자초하는 結果를 招來하기 때문이다.北韓에 대한 韓國의 公式的 見解는北韓은「UN 韓國使節團」이 要請한대로의 選舉를 施行하지 않은 不法的北韓政府로서 韓國動亂을 誘發시킨 罪와 韓國을 顛覆시키려는 繼續的企圖御策 때문에 어떠한 正統性도 상실되었다는 것이다. 金日成은 韓國動亂에 個人的으로 責任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으며, 또한 韓國에서 가장 심한 증오의 對象이 되고 있다. 따라서 金日成이 權力の 座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어떤 成果있는 會談도 크게 妨害를 받을 것이다.北韓提案의 受諾에 따르는 政治的 意味와 함께 成長하는 韓國經濟를 考慮해 볼때 統一을 爲한 意味깊은 手段으로서의 經濟交流가 短期間에 成就될 可能性은 大端히 稀薄하다. 그러나 앞으로의 10年間에 展望은 好轉될 公算이 매우 크다.

韓國政府의 政策의 基礎는 진지한 統一會談이 있기 이전에 韓國이 北韓보다 經濟的 優位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優勢는 70年代 後半에 거의 確實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政策은 經濟的 統一政策이 될뿐만 아니라 全体로서의 民族統一의 成就에 寄與할 것 같이 보인다. 그것은 韓國이 朴正熙 大統領이 1970年 1月 9日에 밝힌 年頭教書에서 가장 잘 밝혀져 있다.

• 70年代는 民族統一의 時代로 決斷을 내리기에는 무언가 성급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統一成就를 爲하여 보다 積極적으로 接近을 試圖해야 하는 시대이다. 韓國은 統一의 基盤을 造成하기 위하여 政治, 經濟, 國防, 社會, 文化 등 모든 分野에서 北韓보다 앞서는 位置를 確保하여 統一問題에 主導權을 잡아야 할 것이다.

祖國의 近代化는 暫定的인 目標이며, 우리나라의 統一政策의 基本原理는 國內 및 國際的 狀況이 如前하는 限에서는 언제나 不變狀態를 維持하게 될 것이다. 이같은 우리의 立場을 취하게 한 것은 北韓 徒黨이 일으킨 戰爭때문이다. 統一成就를 爲한 가장 빠른 길은 지금까지 우리가 推進하여 왔었던 經濟建設, 輸出 增進으로서 우리 自身을 鞏固히 하는데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朴大統領의 演說에서, 韓國政府는 效果的인 統一成就를 爲한 礎石으로서 確固한 經濟秩序를 維持하게 되는 1970年代 後半을 統一成就의 時期로 잡고 있다는 豫測을 할 수 있다.

다. 政治的인 諸 考慮事項

韓半島統一을 爲한 主要政治的妨害는 再統一된 韓半島를 統治하는 政治構造를 어떠한 形態로 構成하는가이다. 우리는 北韓이 非妥協的인 「스타린」主義를 絶對적으로 支持하고, 韓國이 敵意에 찬 反共路綫을 固守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問題의 깊이와 진지함을 쉽게 理解할 수 있다. 本質적으로 北韓의 統一公約은 韓半島全體의 赤化統一을 爲하여서는 公共然한 軍事作戰을 包含한 어떠한 手段의 使用도 不辭한다는 것이다. 反對로 韓國의 立場은 共產主義를 統制하고, 同時에 어떠한 潛在的인 支配團體로부터 올 수 있는 共產主義의 影響을 完全히 除去하는데 있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表面上의 一비록 内部的으로 다르다 할지라도— 不妥協과 서로 엇갈리는 外觀은 國際間的 冷戰狀態 및 強大國 指導者들의 背景과 같은 國際情勢의 하나의 擴張된 反映인 것이다. 南北韓間의 非妥協 및 強大國들의 冷戰迴避政策은 韓半島를 永久的으로 또는 半永久的으로 分断狀態를 持續—거의 피동적으로—化 해나가는 傾向으로 흐르고 있다. 1950 年에 느닷없는 武力統一이란 불장난이 지난 후, 美國의 統韓政策은 「UN에 依한 韓國統一」이라는 基本的인 立場을 取하는 한편, 韓國의 再統一問題는 美國外交에의 第2次的인 關心으로만 取扱하여 왔던 것이다.

蘇聯의 對韓政策의 核心은 亞細亞에서 中共의 主導權을 줄이고, 美國이 影響力을 排除하여 蘇聯의 防衛를 튼튼히 하는데 있는것

같다. 이러한 蘇聯의 目的은 韓半島가 統一되는지 또는 分斷된 狀態로 있던지간에 達成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서 蘇聯은 自立的이고 統一된 韓半島-共產主義者가 깊이 參與하는 統一韓國-보다는 日本의 軍事再武裝에 대해서 더 깊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

日本도 韓國問題研究에 重要한 關心對象이 된다. 그러나 가장 重要한 關心事는 中共이다.

日本의 경우 韓半島統一이 어떻게 하여 利點이 되는가를 理解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經濟的으로 日本은 韓國과 北韓에 모두 去來를 하고 있으므로 統一이란 日本의 經濟的利益에 별반 도움이 되지 못한다. 軍事的으로도 韓半島統一은 日本의 再武裝을 刺戟하게 될 것이며, 이것은 政治的으로나 財政的으로나 日本의 口味에 맞지 않는 일이 될 것이다.

中共은, 勿論 韓半島의 完全한 赤化를 企圖하려고 하지만 于先은 韓國問題를 그들의 第一次의 關心事인 台灣問題다음으로 取扱하려고 했다. 北韓이 中共의 友好國으로 남아있는 限, 中共이 韓半島 統一을 公然하게 全幅的으로 支持한다는 것은 거의 不可能하다.

勿論 中共은 北韓을 政治的으로 支持할 것이 期待된다. 이러한 點에 對하여 A. Doak Barnett는 다음과 같은 記述에서 中共의 態度를 適切히 指摘하고 있다.

“北京政府가 北韓을 中共北東戰線의 緩衝國으로 無限定한 支持를 約束하고 있다는 것은 1950年 以來로 明白하여졌다? 北韓에 對

한 中共의 約束 — 反修正主義陣營의 理念的 同盟체로서 —
은 앞으로도 繼續되리라는 것이 論理的으로 期待되지만, 韓半島統一
이 長期的인 中共目的의 第二次的인 側面以上이 될 것인가는 疑心
스럽다.

따라서 韓國問題에 關聯된 어떤 強大國들도 實際로 韓半島統一을
壓迫적으로 渴望하는 國家는 하나도 없는 것 같다.

그리고 事情이 이와 같지 않다고 하더라도 窮極的인 解決은 韓
國人들 自身에게 있는 것 같다. 따라서 問題의 基礎를 생각해
보기 위하여 南北相互間의 統一에 對한 努力을 簡單히 再檢討하는
것이 適切할 것이라고 본다. 南北間의 統一公式의 差異가 어느
程度가 되는가를 알면, 雙方의 統一努力이 非效果的이었다는데 조금
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

1948년에 統一會談을 가지려던 金九先生과 金圭植先生의 努力이
失敗한 以後 南北間에는 하잘 것 없는 接觸도 外面當해 왔다.

1963年の 南北間의 「올림픽」單一「팀」의 創設도 簡單하게 그
쳐버리고 成功하지 못했다. 北韓의 統一會談의 提案은 — 政治的
方便으로서 — 韓國의 不妥協的(妥協的이 아니라 非妥協이 아니
라 妥協할 수 없다는 意味)인 態度로서 이미 過去에 默殺되었다.
이러한 理由로 韓半島統一에 對한 政治的인 諸 考慮事項은 民主主
義와 共產主義의 冷戰과 直接 關係가 있게 되며, 이러한 緊張의
緩和은 東·西間이나 또는 南·北韓間에 어떤 種類의 「데탕트」를
반드시 가져오게 될 것이다.

東·西間の 「데탕트」와 그 結果로 오는 一般的인 國際緊張緩和의 可能性은 적어도 1962年의 「큐바」危機 以來로 깊은 思索을 要하는 課題로 되어 왔다. 國際關係의 趨勢는 — 特別히 超強大國들을 包含해서 — 最近에 理念的인 修辭를 줄이고 보다 부드러운 表現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核實驗禁止條約, 「와르사와」條約 및 戰略武器制限會談 (S A L T)은 이러한 趨勢를 뚜렷이 表明해 주는 것이다.

더욱 最近에는, 越南戰에 對한 美國內의 反應이 美外交活動의 非積極化와 海外駐屯軍의 減縮을 支持하게 되었다. 이러한 傾向은 닉슨·독트린과 키신저의 外交로 그 絶頂에 達했다. 많은 觀測者들은 「닉슨·독트린」을 美國의 國際的 「딜레마」를 解決하려는 또 는 적어도 柔和시키려는 重大한 過程을 向한 嚆矢로서 보고 있다. 닉슨·키신저의 中共訪問은 아마 이러한 過程의 履行에 있어 가장 代表的인 것이 될 것이다.

國際關係의 緩和는 勿論 南·北韓의 理念紛爭을 輕減하는 必要的인 信號는 아니다. 歷史的으로 韓國人들은 獨立的인 反應을 取하였으며, 이러한 것은 直接的인 去來를 變革시킬 수 있는 아무런 指標가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적어도 韓半島에서의 部分的인 解氷이 一般的인 東·西柔和의 結果로서 일어날 수도 있다는 假定은 全히 不當한 推想만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推定은 美·中共關係 改善을 생각한다면 眞實로 나타난다. 美國과 中共은 自己들이 決定만 한다면 韓國과

北韓을 自己들 마음대로 影響力을 發揮할 수 있는 位置에 있다.

南·北韓이 相對方에 向하여 自己位置의 双務的인 柔和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은 亦是 偶然한 일이다. 韓國人들 스스로의 同意에 立脚하여 만들어진 統一政策이 外部에서 造作한 것 보다 더 바람직하다는 것은 論理上 當然한 것이다. 南·北韓의 韓國人들은 이를 알고 있다. 그리고, 비록 充分하지는 않더라도 韓國의 立場이 보다 부드러워 질 수 있는 徵兆가 있다. 人工的障壁除去 및 南北韓 共同鐵道構築努力의 提案은 韓國의 朴正熙 大統領이 1971年 3月에 처음으로 提起했다. 이러한 提案이 있기 以前에 벌써 1970年 8月 15日 朴正熙 大統領은 光復節記念慶祝辭에서 南·北韓間의 接觸點을 摸索하기 爲한 다른 提案을 했었다. 그리고 意味深長하게 朴大統領은 이러한 政策提案에 하나의 先行條件, 卽 北韓이 韓半島의 武力赤化統一을 完全히 拋棄하고, 同時에 暴力的革命的 手段으로 大韓民國을 顛覆시키려는 意圖를 完全히 拋棄하는 先行條件을 提示했다. 이러한 兩提案은 北韓이 하나의 宣傳에 不過하다고 拒絶해 버렸지만, 그러나 이러한 提案은 北韓共產主義者들과 接觸을 하려는 韓國의 漸進的인 柔和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

또한 韓國의 立場이 變化한 또 다른 指標가 있다. 1970年 新民主黨 大統領 候補인 金大中은 公々然하게 北韓과의 交流를 提唱했다. 大韓民國의 「인테리」階層은 大体로 金候補에 投票를 하지는 않았지만, 一般的으로 南·北間의 外交的 接觸에 좋은 反應을 보이는 것 같았다.

따라서 過去에는 暗懨하였지만 未來는 적어도 最少限의 希望은 있는 것 같았다.

지금까지의 研究의 意圖는 韓半島統一에 대하여 보다 重大한 政治的 諸 考慮事項을 若干式 前進시켜 나가는데 있었다. 그것은 먼저 國際的인 「스펙트럼」으로 指向하는 것이고, 統一과 關聯된 國內問題를 대단히 細密하게 論議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 提起된 問題點들과 더불어 이러한 國內的 問題의 分析은 南·北韓의 政治的 統合에 對한 短期的 分析이 不可하다는 것을 알으며 주었다. 그러나 全般的인 東·西間의 「데탕트」를 가져온 劃期的인 外交的 成功이나 또는 南·北韓間의 理念的 戰爭의 緩和는 一般的인 國際情勢나 特殊한 契機에 依하여 1970年代에는 不可能하며, 萬一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南·北韓關係에 完全한 새로운 「패턴」이 나타날런지 모른다.

라. 軍事的 諸 考慮事項

韓國問題에 關聯된 廣範圍한 多數의 考慮事項 가운데 가장 批判的인 것은 아마도 軍事的인 側面에 關聯된 問題들일 것이다. 이것은 韓國戰과 더불어 南·北間의 莫大한 軍事力에 起因하고 있다. 1953年의 休戰協定以後 平和協定이 아직 締結되지 못한 事實은 앞으로의 狀況을 더 惡化시켜 雙方의 好戰的인 態度 — 특히 北韓의 — 를 더 助成시킬 뿐이다. 韓半島에서의 衝突은 每日같이 全地域에 影響을 주며, 그러한 軍事霧圍氣는 가장 關心이 없는 西

歐사람들에게도 波及된다. 韓半島統一의 經濟的, 政治的 諸 事項은 相互 密接한 關係가 있으며 軍事的 諸 考慮事項에 相當한 도움이 된다. 1950年 以來로 韓半島統一의 手段으로서 軍事力의 利用은 顯著한 役割을 했다. 北韓의 1950年 6·25事變과 最近의 「푸에블로」事件, EC - 121機事件 및 靑瓦台事件은 北韓의 侵略性을 最大限으로 露證한 것이다. 나아가서 韓國政府를 顛覆하기 爲한 努力으로 北韓武裝人民軍의 韓國으로의 조심스러운 侵透는 1960年 後半부터 繼續되어 왔다.

이러한 北韓挑發에 對하여 때때로 影響을 받고 있는 韓國의 反應은 純粹한 防衛的인 手段만을 取해 왔다. 그런후 이러한 韓國側 反應이 언제나 그러했다는 것은 아니다.

例를 들면 舊自由黨政權時의 李承晩 大統領은 公々然히 3月北進 政策을 表明하였고, 지금도 相當數의 韓國人들은 統一成就를 爲한 手段으로서 軍事力의 使用을 바라고 있었다. 이러한 不妥協的인 狀況은 지금까지 軍事衝突의 危險을 가져온 不安定한 狀態를 惹起하였다.

이러한 狀況으로 因한 뚜렷한 하나의 結果는 南·北韓 雙方에 集團防衛 및 自体防衛라는 二重的인 軍事戰略의 發展을 招來했다. 北韓의 二重戰略은 北韓을 防衛할 수 있고, 戰爭이 일어나는 境遇에는 韓國에 致命的인 打擊을 줄 수 있고, 戰爭期間中 韓國內에서 暴動을 刺戟할 수 있는 相當히 現代화된 軍隊를 國內的으로 維持하는 것이라고 闡明되었고, 그리고 對外的으로는 中共과 蘇聯과의

相互防衛條約을 樹立하였다. 韓國의 二重戰略은 더욱 明白한 것 같다. 韓·美相互防衛條約이 1953 年에 締結되었다. 그리고 나아가서 2 個師團 規模의 韓國軍의 越南派兵은 「아시아」의 集團防衛의 理論과 實際에 대한 韓國의 重大한 約束을 가리키는 것 같다. 韓國의 自立防衛는 勿論 明白하다. 卽 그것은 韓國軍現代化努力, 駐韓美軍의 撤收反對로서 分明히 나타난다. 勿論 二重安保概念의 維持는 財政的, 人的資源에서 싸게 든다는 것이며 戰場으로 化할 可能性을 가진 恒久的인 危險으로서의 概念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리하여 南·北韓間의 莫大한 軍事力과 廣範한 戰略은 統一에 重大한 妨害가 되는 것이다.

北韓側으로서는 駐韓美軍의 繼續的인 駐屯은 一次的인 論争点이 되며, 따라서 美軍撤收가 統一成就의 必須的인 先行條件이 되고 있다. 中共軍은 1958 年에 北韓에서 撤收했다. 따라서 같은 條件으로 美軍의 撤收를 論駁해 왔었다. 韓·美의 立場은 美軍의 撤收는 1949 年의 美軍撤收後에 일어난 6.25 事變과 같은 北韓軍의 侵略을 불러 일으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駐韓美軍이 減縮되기까지는 眞正한 統一成就의 發展은 없게될 것 같다.

韓國側이 要求하는 先行條件은 北韓이 統一手段으로서 暴力을 拋棄한다는 것을 무엇보다 먼저 明白하게 밝히려는 것이다. 外觀上 美軍撤收와 類似한 어떠한 것도 期待하기란 어려운 것 같으며, 또한 武力 및 暴力手段의 拋棄는 金日成과 같은 徹底한 「레닌」主

義者에게는 期待하기 어렵다. 熱烈한 反修正主義者인 金日成의 立場은 다음과 같은 말에서 가장 잘 알 수 있다.

“ 革命은 革命에 關聯된 主觀的, 客觀的 狀況이 具體化됨에 따라서 展開되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面에서는 革命主義者들의 果敢하고 熱烈한 鬪爭을 통해서만 革命이 成熟되고 發展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意味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萬一 우리가 單純히 革命成就가 어렵기 때문에 보다 좋은 狀態의 到來만을 기다린다면, 그리고 萬一 우리가 果敢한 鬪爭을 展開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革命的 能力 改善을 期待할 수가 없다. 革命能力은 鬪爭없이 構築할 수가 없고, 또한 熱烈한 鬪爭을 통해서만 改善되고 強化될 수 있다. ”

이러한 金日成의 聲明에서 우리는 金日成이가 暴力을 拋棄한다는 意味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均衡이 取해질 때는 便宜主義가 理念的인 裝飾보다도 間或 더욱 重要할 때가 있다. 共產主義者의 「메스·메디아」는 政治的 事件이나 政策變化를 좋은 角度에서 表現하는데 普通 以上の 能力을 갖고 있다. 그리고 南韓不侵約束은 特別히 暴力的 革命熱意를 完全히 否認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美軍이 撤収하면 期待될 수 있는 希望이 있다. 勿論 萬一 그런 約束이 無視當할 때는 韓·美相互防衛條約의 成實한 履行을 爲해서 美軍이 다시 韓國에 派遣되는 것이다. 北韓側의 眞摯한 約束履行과의 交換으로 駐韓美軍의 完全 또는 部分撤収 以外에도 金日成이가 大韓民國 顛覆努力을 줄이는 實際的인 몇가지

理由가 있다. 그러한 努力은 가장 非生産的이라는 것이 立證되었다. 高秉喆氏 見解에 依하면, 그런 努力은 北韓의 好戰性을 演劇化한 것으로서 오히려 韓·美双方의 軍備를 大規模로 擴大하고 鞏固히 하는 것을 促進시키는 結果만을 招來하게 되었던 것이다.

아마 더욱 重要的 것은 이러한 戰略들을 大韓民國 國民에게 影響을 주어 共產主義를 同情하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韓國國民들을 더욱 疎遠하게 해 버린 結果만을 가져왔다. 어쨌든, 美軍撤収와 北韓의 兩派活動의 中斷은 韓國問題의 長期的 解決의 先行條件이 될 것이다.

南·北韓 双方의 軍事武装의 水準은 普通以上の 水準으로 높으며 따라서 萬一 統一이 現實化되려면 最少限의 安定維持程度로 減縮되어야 한다. 勿論 이것은 大膽한 努力으로, 南·北 双方間뿐만 아니라 美國, 中共, 蘇聯사이에 도 最少限의 協力이 要求되는 것이다. 그러한 協力を 達成하는데 妨害的 要素가 지금 흔들거리고 있다. 韓國에서의 軍事的衝突의 回避는 根本적으로 모든 關聯國家들에게 利益이 될 수 있다. 悲觀論者들은 調查準備가 모든 關聯部分 全部에 걸쳐 滿足을 줄 수가 없다고 하지만, 樂觀論者들은 萬一 部分的인 非武装에 대한 成功的인 「모델」이 韓國에서 發展될 수 있다면 그것은 全世界에 相當한 重要性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否認할 것이다. 여하튼 잘 武装되고 理念的으로 反對되는 軍隊를 가진 双方의 軍隊가 眞摯한 統一論議에 앞서 解決해야 될 先決問題인 것이다.

本 研究의 이 部分은 반드시 熟考되어야 할 重要 軍事問題와 統一關係를 究明하려고 했다. 이 問題에 가장 複雜한 것은 雙方이 同意할 수 있는 範圍에서의 常備軍의 減縮問題이다. 이러한 困難의 解決은 分明히 直接的인 水平線상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軍事問題는 政治問題의 直接的인 結果라는 것이 強調되어야 한다. 前者의 解決의 主要 열쇠는 後者를 解決하는데 있어 첫번째 要因이 된다. 韓半島分断은 더욱 深刻하게 하고 있는 政治問題에 共通의 合致를 가져올 때 비로서 軍事的 問題도 解決될 것이다.

× × ×

本 章은 暫定的으로 韓半島統一에 影響을 미치는 人間的, 經濟的 政治的, 軍事의인 一聯의 諸 要素들의 廣範圍한 領域을 살펴 보려고 試圖했다. 勿論 이것은 完全히 總網羅한다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韓國問題에 固有하는 非正常的인 많은 細密한 要因들이 그러한 進行을 阻止하기 때문이다.

經濟的側面에서 分断韓國이 支持할 수 있는 方法을 發見하기란 어렵다. 그러나 오늘날 南·北韓 雙方的 經濟는 分離된채 成功的인 發展을 하고 있는 狀態다. 北韓은 그들의 勞動力 不足과 農業部門의 低生産때문에 經濟交流를 通하여 利得을 取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러한 理由때문에 韓國은 漸次的으로 經濟交流에 接近해 온 것이 一般的 傾向이다. 韓國의 立場이 變遷하면서 70年代의 中—後半이 刮目할만한 經濟交流를 效果的으로 할 수 있는 時期라는 것은 南·北韓 雙方的 言行에서 明白하게 나타나고 있다.

統一과의 關聯에서 政治的 狀況이 가장 어려운 事項으로 外觀의
로는 가장 非妥協的인 要因이 된다. 統一問題에 關心있는 餘他の
強大國들 中의 어떠한 나라도 統一問題를 二次的 關心 以上으로
直接 行動的인 追求를 할 수 있는 理由를 갖지않고 있는 것 같
다. 이것은 韓國問題의 解決은 本質的으로 韓國内部的 問題라는
것이다. 그러나 最近의 國際情勢의 全般的인 一般的 傾向은 冷戰
의 緊張이 漸次的으로 緩和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半「데탕트」
로의 앞으로의 趨移는 結局 南·北韓間의 緊張緩和를 가져올 것이
다. 大韓民國 内部的 政治的 壓力은 北韓과의 接觸을 漸次的으로
支持하는 方向으로 高潮되어 가고 있다. 長期的인 面에서 政治的
傾向은 突破口를 向하여 나가든지, 或은 적어도 70年代에는 刮目
할만한 發展을 가져올 것이라는 展望이 서게 된다.

가장 危險的인 事項은 恒時 暴發의 危險이 있는 軍事的 狀況
問題이다. 이러한 危險은 相互間的 不信과 危懼心을 생각할 때
당장에 가라앉기란 거의 期待할 수가 없다. 그러나 政治的인 合
意가 이루어질 때는, 軍事問題도 크게 好轉될 것이다. 勿論 韓半
島統一의 先行條件은 많다. 그런 것들로는 적어도 部分的 「데탕
트」의 一般的인 雰圍氣와 敵愾心의 減縮을 거의 確實히 包含한다.

성명	단번 127	저자명	대학	학과	학년
			과목명	학과	학기
영남대학교 기입하시오.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4. 南北韓 統一戰略의 合一)

가. 韓半島의 緊張緩和 壓力 : 合一點

(1) Asia 的 緊張緩和

實際로 아시아에서는 지난 72年동안 적인 國際的 事件이 많이 일어났다. 共修交, 南北韓의 政治對話 등등이 그것이다. 두 各國의 이른바 緊張緩和政策의 일환이다. 그리고 이들 諸事件은 Asia의 國際關係를 하나씩 緩和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越南戰休戰을 포함한 그같은 國際關係를 緊張緩和로서 決定的으로 해박야 할 문제이다.

왜냐하면 어떤 國家間的 雙務的 關係에서 緊張緩和의 성격을 가진 合意와 조치가 이루어 졌다고 해서 그것이 곧 그 國家의 周邊地域 全体에 緊張緩和를 초래한다고 볼 수 없는 일이며 또한 緊張緩和에 對한 아시아의 特殊事情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어떤 國家間的 雙務的 緊張緩和는 다른 關係國 혹은 周邊國家關係에 緊張을 造成할 수도 있으며 혹은 어떤 局面에서의 緊張緩和는 다른 局面에서의 緊張의 再構成으로 바뀌질 수도 있고, 또 Asia의 國際關係가 갖는 特殊事情으로 어떤 國家間的 緊張緩和가 全体的 緊張緩和로 보편화 될 수 없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우선 이 問題를 고찰하기에 앞서 論議를 明確히 하기 爲해 國際關係에 있어서 緊張이란 어떤 狀態를 말하며 緊張緩和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를 要約할 必要가 있다. 비록 國際關係理論에서 確實하게 定義된 것은 아니지만 緊張이란 國際關係에 있어서 紛爭과 平和의 中間狀態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즉 緊張이란 國家間的 關係가 平和的이지 않으면서 紛爭의 可能性을 極少化하여 平和關係를 이룩하려는 일련의 過程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國家間的 어떤 조치와 合意自体가 和解的 性格을 띠었다 하더라도 만일 그것이 紛爭의 可能性 감소하는 것이 못되는 것이라면 그것을 緊張緩和로 볼수 없는 것이다. 이로부터 國境紛爭의 可能性을 갖고 있는 A國과 B國이 양국間的 國境을 새로이 調整키로 合意하고 國境調整作業에 착수했다고 할 境遇, 이같은 것은 그 性格上 和解的인 것이긴 하나 오히려 國境再調整作業 過程에서 紛爭의 陽性化를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는 完全히 緊張緩和的인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Asia 에 있어서의 共黨의 緊張이란 中共 및 蘇聯의 赤化政策과 美國과 Asia 周辺國家들의 反赤化政策間的 마찰로 因해 야기된 것이었다.

美·中共和解와 日·中共和解 및 越南戰 休戰은 비록 그들 強大 國레벨에서의 共黨의 緊張을 緩和하는데 貢獻했다 할지라도, 赤化 對 反赤化의 根本的인 緊張要因을 제거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Asia 國際關係에 있어서 緊張緩和의 普遍化를 초래한 것이 못된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이것들이 Asia 國際關係에 있어서 紛爭

의 가능성을 감소시키지 않았다.

이같은 설명은 다분히 冷戰思考的인 것으로서 時代錯誤的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같은 赤化 對 反赤化의 緊張은 各國 支配層의 利益과 密接한 연관을 맺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Asia 國家들이 政治 經濟 社會的으로 不安하여 國家間의 關係에 있어서 現狀을 維持할 能力을 갖고있지 못하기 때문에 現實的 妥當性을 갖는 것이다. 만일 아시아의 強大國 및 中小國家들이 諸局面에서 安定을 누리고 各國의 國家關係를 現狀凍結시킬 能力을 가졌다면 이같은 赤化 對 反赤化의 緊張原因이 해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같은 일련의 사건은 아시아에 있어서 緊張緩和을 보편화 했을 것이다. 그러나 특히 赤化에 대해 아시아의 弱小國家들의 反赤化力量이 不安定한 상태에 있으므로 緊張緩和의 보편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게다가 아시아는 현재 國境紛爭을 일으키고 있는 中共과 蘇聯의 勢力競爭地域이다. 따라서 美·中共, 그리고 日·中共이 쌍무적인 화해에 합의했다 하더라도 아시아에 있어서의 中·蘇의 對決은 당분간 더욱 침체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같은 사실은 앞서의 일련의 사건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에서의 緊張이 계속될 우려를 낳고 있다. 물론 中·蘇紛爭이 끝없이 長期化하리라고는 볼 수 없다. 만일 中共의 核力이 크게 발전하고 中共의 經濟力이 더욱 강화된다면, 蘇聯과 中共은 양국간의 對決關係에서 마치 오늘날의 美·蘇關係로 변천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사태가 도래할 때까지 즉 中共의 核力이 蘇聯에 비등해지고 經濟力이 強

化될 때까지의 기간까지는 中·蘇紛爭은 계속될 것이며 이 기간동안 아시아에서는 中·蘇對決로 인한 緊張이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中·蘇가 協力關係를 이룩하면 아시아에서는 共產主義의 國際力量이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결국 赤化 對 反赤化의 緊張關係를 더욱 첨예화시킬 것이다.

요컨대 緊張緩和란 바꾸어 말하면 국가간의 平和共存을 기반으로 한 和解的 現狀維持를 뜻하는 것인데, 아시아에서는 Organski의 用語를 빌리자면 強力한 不滿足國家로서의 赤化勢力이 있는데 반해 平和共存의 기반 위에 현상을 유지할 力量이 있는 反赤化勢力이 脆弱하여 平和의 條件이 造成되지 않은채 緊張이 계속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시아인의 아시아」를 구호로 한 너슨·독트린에 입각한 美·中共和解와 그에 뒤이은 日·中共和解, 그리고 越南休戰은 그들 강대국들의 雙務的 關係에서만 緊張을 緩和하고, 「아시아의 緊張을 아시아인에게」며말긴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그러니까 越南戰休戰을 피크로 아시아에서는 일시적인 緊張緩和의 무드가 팽배할 것이나 곧이어 그같은 類似緊張緩和는 赤化勢力 對 民族主義勢力 및 中共和 蘇聯의 對決이라는 緊張의 渦中속에 휩쓸릴 우려가 있는 것이다. 물론 아시아의 不安定한 反赤化民族主義勢力에 屈服的의 和解를 모색한다거나, 혹은 赤化勢力에 대응할 효과적인 集團力을 구사한다면 경우가 다를 것이지만.

이것이 바로 오늘날 安定속에 平和와 協力を 지향하는 유럽의 緊張緩和에 대한 아시아의 緊張緩和무드의 특색이라고 할 것이다.

(2) 韓半島의 緊張緩和

韓半島에 있어서의 緊張緩和는 유럽에 있어서의 緊張緩和와 같이 對立關係에 있는 國家간의 꾸준한 接觸의 結果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強大國간의 外的 與件에 의해 거의 不可避한 것으로 動機가 부여된 것이라는 점에서 앞서 말한 아시아의 緊張緩和와 脈絡을 같이 한다. 그러나 韓半島에 있어서 南北韓은 韓半島의 現狀維持할 수 있는 能力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韓半島의 緊張緩和는 아시아의 緊張緩和 보다 좀더 持續性을 가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에 있어 韓半島의 緊張은 이제껏 美·蘇 혹은 美·中共의 對決로 인해 造成·持續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美·蘇 및 美·中共이 雙務的 和解를 함에 따라 韓半島의 對決은 그같은 和解에 步調를 맞추지 않으면 안될 狀況에 있는 것이다. 물론 南北韓間의 어떤 內的 必要性이 南北緊張緩和의 움직임을 促求하기도 했지만 역시 보다 결정적인 것은 南北韓의 對決을 규정해 온 強大國의 和解무드 속에, 南北韓이 각기 既存政治體制의 存立을 유지하고 또한 상호간에 상대방에 대한 우월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로 그들의 強大國同盟간의 和解에 발맞추어 南北韓間의 緊張緩和에 이니셔티브를 취하려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같은 것은 南北韓의 接觸이 이루어진 시기가 美·中共 和解를 비롯한 韓半島를 둘러싼 強大國간의 緊張緩和의 시기와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에서도 명백히 드러난다.

즉 南北韓은 이제껏 아무런 接觸도 해오지 않다가 美·中共秘密

外交에 자극되면서부터 갑작스레 接觸을 벌여온 것이다. 따라서 韓半島의 緊張緩和는 이같이 갑작스럽게 전개된 것이기 때문에 꾸준한 接觸끝에 이루어진 緊張緩和 보다 그 페이스와 展望이 不安定・不確實하다. 다행히 南北韓은 이제껏 상호 敵對的인 關係에서 軍備를 강화하고 相對方에 대한 內的 結束을 강화해 온데다가 그 力量이 어느 정도 均衡을 이루고 있으므로 그같은 갑작스런 接觸으로 인한 緊張緩和의 不確實・不安定性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現狀을 유지할 수 있는 能力을 보유하여 緊張緩和를 지속시킬 수 있는 立場에 있다.

그러나 南北韓이 상호 分斷된 立場을 고수한다고 할 때, 南北韓의 緊張緩和를 南北韓의 現狀維持力量만으로 유지해 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韓半島의 緊張과 그 緩和가 이제껏 韓半島와 관련된 強大國들의 關係變化에 따라 규정・促求되어 온 것이기 때문이며 또한 韓半島는 韓半島만의 따로 떼어진 狀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太平洋地域의 일부라는 所屬속에 있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이유로 실사 南北韓이 분단된 채로 緊張緩和를 追求하는데 있어서 外部로부터 주어지는 狀況의 변동에 따른 限界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多幸하게도 南北韓은 7.4 聲明에서 統一의 原則을 먼저 정해놓고 緊張緩和와 協力을 摸索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즉 南北韓이 分斷된 채로는 緊張緩和의 持續에 限界가 있는 만큼 早速히 統一을 이룩함으로써 그같은 外的 狀況의 變動으로

인한 緊張緩和의 限界라는 문제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점도 다시 생각해 보면 오히려 統一이 前提가 되고 緊張緩和가 추진되고 있음을 뜻하는 듯 하여 만일 어느 일방이 統一을 원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統一이 不可能할 경우 緊張緩和가 破壞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듯하여 결코 多幸한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어쨌든 南北韓統一은 빠른 시일내에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성질의 것이고 韓半島를 둘러싼 強大国간의 關係變化는 빨리 變化할 것이고 보면 어차피 韓半島의 緊張緩和는 國際關係變動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어있는 듯 하다.

韓半島를 둘러싼 強大国關係의 變化가 韓半島의 緊張에 미치는 영향은 일단 두가지 차원에서 전망할 수 있다. 즉 그 첫째는 韓半島를 아시아의 國際關係의 일부로서 보는 것이며 그 둘째는 韓半島만을 별도로 독립시켜서 보는 것이다.

韓半島 緊張緩和를 아시아 國際情勢의 일부라는 차원에서 볼때 韓半島에서는 아직 赤化 對 反赤化의 緊張要因이 남아있고 장차 아시아 全体에서 赤化勢力이 강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현재의 일시적 緊張緩和가 다시 緊張狀態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다행히 韓半島의 北半部는 中·蘇勢力 競爭의 均衡點 같은 위치에 있어서 당분간 침에 화될 中·蘇對立으로 인한 緊張의 강화는 없을 것이다.

中·蘇對立이 和解될 때 北韓이 말하는 南韓革命을 위한 國際的 力量이 크게 강화될 것이며 이는 현재의 緊張緩和 狀態를 결정적

으로 破壞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韓半島의 緊張緩和의 國際關係上的 時限은 中·蘇和解의 시기까지는 연장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韓半島만을 별개의 것으로 따로 떼어 생각할 때, 韓半島의 緊張緩和는 美·蘇·中共·日本 등 강대국 관계의 변동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가령 日本과 美國의 關係가 악화된다거나 日本이 中·蘇와 協力하면서 北韓과 協力關係를 수립한다거나 혹은 美國이 極東地域으로부터 갑작스런 disengagement를 단행할 때에는 韓半島 南北韓關係의 현상유지를 위한 背後勢力的 不均衡을 초래 韓半島의 緊張을 다시 高潮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韓半島의 緊張緩和는 南北韓의 現狀維持能力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中·蘇和解나 日本의 對北韓協力 및 美國의 disengagement라는 국제정세의 변동이 일어날 때까지 統一이 이룩되지 않는다면 다시 緊張으로 환원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이 곧 韓半島에 있어서 緊張緩和의 國際關係上的 時限性이다.

(3) 南北韓의 對強大国關係

南北韓이 統一을 하지 못한채 (왜냐하면 統一은 複雜하고 많은 時日을 요구하기 때문에) 韓半島 緊張緩和의 國際關係上的 時限性을 극복하려면 南北韓關係의 일정수준 이상의 발전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關聯 強大国과 南北韓이 일정한 수준 이상의 관계를 수립함으로써 強大国들로 하여금 南北韓 緊張緩和를 沮害치 않도록 協

調를 구해 놓아야 할 것이다.

日本の 어떤 學者는 南北韓과 韓半島와 관련된 4 強國과의 장래의 關係를 一點半關係로 전망하고 있다. 말하자면 韓國의 美國 日本과의 公式的인 友好同盟關係를 1로 한다면 韓國의 中共과 蘇聯에 대한 關係를 半의 關係로 설정하고 北韓의 中共 蘇聯에 대한 公式的인 友好同盟關係를 1로 하면 北韓의 美國 日本과의 關係를 半으로 설정하는 公式이다. 이같은 日本學者의 展望公式은 韓國과 北韓이 蘇·中共 및 美·日과 각각 接近하는 방향을 시사해 준다는 면에서 의의있는 것이며 동시에 強大國들이 韓半島의 緊張緩和에 보다 恆久的으로 協力하기 위해서는 南北韓과 強大國의 關係가 적어도 이같은 一點半 關係의 水準으로는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제시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런데 이같은 南北韓과 4 強國과의 一點半關係를 상정했을 때 韓國으로서서는 매우 곤란한 국면'에 처하게 된다. 왜냐하면 現단계에서 볼때 北韓의 美·日과의 接觸은 용이한데 반해 韓國의 中·蘇와의 接觸은 크게 곤란하기 때문이다. 北韓의 경우 美國과의 「半의 關係」를 樹立하기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것은 美國이 駐韓美軍의 撤收와 極東에서의 緊張緩和를 위해 北韓에 대해 文호를 개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北韓의 対日接觸에 있어서도 日本과 北韓이 다같이 느끼고 있는 그들간의 通商擴大의 必要性으로 인해 日本이 오히려 北韓에 추파를 던질 정도이기 때문에 北韓은 매우 용이하게 日本과 「半의 關係」를 수립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韓國이 中共이나 蘇聯과 接觸을 모색함에 있어서 현재로서는 상대방은 韓國에 대해 그같은 「半의 關係」樹立에 관한 의도를 보여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 최근 韓國政府가 中共이나 蘇聯과 接觸을 시도하려다 실패했는지 혹은 그같은 努力을 계속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어쨌든 韓國은 韓半島緊張緩和의 유지를 위한 韓國側의 力量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그들 中·蘇와 「半의 關係」樹立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韓國은 韓半島의 緊張緩和를 위한 協力을 구하기 위해 蘇·中共과의 接觸을 모색함에 있어 意志와 現實간의 갭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狀況에 처해있는 셈인데 문제는 이같은 갭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있다.

韓國은 中·蘇로 부터 日本의 北韓에 대해 느끼는 것과 같은 通商파트너로서의 매력을 가진 것도 아니며 美國이 北韓에 대해 느끼는 것과 같이 外交政策上 和解를 해야할 必要도 갖고 있지 않다. 게다가 韓國이 接觸하고자 할 中·蘇는 美國이나 日本과는 달리 이데올로기를 強力히 내세우는 국가이다. 이같은 여건에서 볼때 韓國의 中·蘇에 대한 直接接觸은 불가능하거나 혹은 가능하더라도 하더라도 성공적인 結果를 얻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韓國의 中·蘇에 대한 接觸은 中·蘇와 和解하고 있는 美·日의 주선을 통한 間접接觸으로 부터 시작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直接接觸을 통해 關係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지만 시초단계에서는 間接的인 接觸채널을 통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보다 고위수준에서의 接觸을 쉽게 모

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물론 美國과 日本이 韓國의 中·
蘇와의 「半의 關係」樹立에 찬성한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할 것이다.

(4) 南北韓간의 關係

韓半島의 緊張緩和를 유지하기 위해 南北韓關係는 어느 수준까지 발전되어야 할 것인가? 물론 南北韓의 關係가 協力을 보다 강화하고 統一을 향해 보다 接近할 수록 韓半島의 緊張緩和는 安定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韓半島緊張緩和의 安定을 위한 最低水準의 南北關係(이것은 물론 韓半島緊張緩和의 國際關係上的 時限內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만을 論하기로 한다.

韓半島의 南과 北은 아시아·極東地域의 緊張과 緊張緩和 및 緊張의 再編成의 조류 속에 있어서 하나의 배와 같은 共同運命體的 關係에 있다. 이같은 共同運命體라는 인식은 南北韓이 單一民族으로서 統一國家를 平和的으로 이룩하려고 努力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南北間의 協力過程에서 작성될 것이다. 만일 이같은 南北韓의 共同運命體的 인식이 가능하다면 실사 韓半島 주변의 國際關係가 韓半島緊張에 沮害의인 방향으로 전개된다 하더라도 韓半島의 緊張緩和는 그에 영향받지 않고 계속 발전될 것이다. 여기서 韓半島緊張緩和의 安定을 위한 최저수준의 南北韓關係는 南北政權이 이같은 共同運命體的 認識을 가능케 하는 關係여야 할 것이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南北韓이 적어도 實利를 위한 基本的 協力을 통해 南北交流의 互惠的 結果를 축적할 수 있는 關係이다. 즉 南北韓이 상호간의 困難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실제로 도움이 되었다는 실적을 쌓을 때 그러한 關係가 이룩될 것이다

그리고 南北韓의 體制가 어떤 民族的 次元에서의 等質化의 方向으로 接近하는 關係에 있어야만 그같은 共同運命體의 認識이 可能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相互간의 互惠性만으로 가령 北韓의 對南赤化意欲을 完全히 포기케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南北韓이 民族的 次元에서 어떤 體制의 等質化를 실현함으로써 南北韓이 接近을 통해 平和的으로 통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확실해질 때 그같은 兩側間競争속에서의 南北韓政權의 共同運命體의 認識이 확고해질 것이다.

南北韓은 이미 南北調節委員會의 구성을 계기로 南北韓의 互惠的 協力을 약속한 바 있다. 그리고 또한 南北韓은 상호의 憲法을 기왕의 노미날한 성격의 것에서 뢰벤스타인의 표현에 따르면 세면틱한것 즉 보다 權力의 現實을 그대로 반영하는 다시 말해서 現實的인 憲法으로 改定, 統治制度의 現實化를 기하는 과정에서 어떤 等質化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같은 約束과 可能性의 示唆가 조금씩 現實化되어 南北韓이 적어도 貿易分野에서 協力하고 軍事分野에서 어떤 합의를 이룩한다면 그리고 南北韓이 상호간의 統治制度上的 차이를 현실적으로 현단계에서는 불가피한 것이라고 용인하게끔 된다면 상호 共同運命體라는 인식이 강화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南北韓이 이같은 關係를 참으로 모색하려 하느냐에 대한 의문이 상호간에 完全히 배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며 또한 그 같은 과정에서 南北韓의 각 체제가 安定을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직 南北對話를 추

진하고 있는 當局만이 判斷을 내릴 수 있고 또 장기적인 政治安定政策도 구체적으로 當局이 樹立·추진할 성질의 것이므로 여기서는 이에 관한 論議를 삼가하기로 한다.

나. 統一戰略目標 및 接近方案：相衝點

韓半島의 緊張緩和 壓力이 南北이 共히 느끼는 課題인 反面에 南北은 統一戰略과 接近方案面에서 거의 正面으로 相衝한다. 南北各己의 現想的 궁극적인 政治目標面에서 부터 現實的인 接近方案에 이르기 까지 相互 排他的인 主張이 峙相 되어 있다. 이러한 相衝狀況을 다음 몇가지의 基本的 範疇에 서서 基本的인 骨格만 검토하고자 한다.

- 自由民主 統一 對 赤化統一
- 平和的 方法 對 革命的 方法
- 漸進的 段階的 接近主張과 政治, 軍事先決主張

南北 各己의 對北·對南接近方式을 檢討하는 것은 前記한 諸般 相衝事項의 骨格이라는 點에서 意義를 갖는다.

一般的으로 自由主義國家는 그 政治構造上 政治와 社會가 區別된다는 名分위에 있다. 따라서 政治와 其外의 社會分野가 區別된다는 認識에서 出發하여 對共產黨 國家와의 接觸에 있어서는 政治的으로 가장 敏感하지 않은 分野부터 始作된다는 類型과 態度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自由主義 國家의 非政治的 接觸提議에 對하여 共產主義 國家가 이에 同調하는 것은 그것이 究境 政治協商으로

發展될 수 있다는 假定에서만 수락하여 왔으며 또한 이러한 그들의 假定에서 볼때 兩體制間의 非政治的 分野에서의 接觸은 國際政治的으로 冷戰時代에 屬하는 接觸類型으로 分類할 수 있다.

이런 事實로 因하여 韓國의 對北韓 接近에 있어서 人導主義的 赤十字會談부터 提議하고 곧 南北調節委員會라는 政治的 接觸을 試圖한 것은 韓國이 갖고 있는 政治構造의 반영과 아울러 國際政治構造의 變化를 同時에 反影한 것이다.

冷戰時代의 國際政治的 効果는 分斷國家에 가장 강렬히 나타나고 있음은 말할 必要도 없다. 다시 말하자면 分斷國家間의 政治的 關係를 가질 수 없는 것이 國際政治의 冷戰時代의 特徵이라 할 수 있다. 이 期間에는 기껏해야 人士交流나 學術交流를 위시하여 국한된 經濟關係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剩餘의 側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런 非政治分野를 넘어서 政府間의 接觸 즉 政治關係의 形成이 곧 國際政治의 解氷期의 特徵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韓國의 경우에는 國際的인 解氷期에 南北對話가 始作되었다는 點에서 赤十字會談과 南北調節委員會를 並存시키지 않을 수 없는 與件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諸與件하에서 韓國으로서는 段階的인 接近을 基本方針으로 내세우고 이를 推進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反面에 北韓의 對南接近態度는 共產主義社會에서 共通되고 있는 政治優先의 原則에 立脚하고 또 鬭爭概念으로서의 平和共存原則에 根拠하고 있다. 그런데 相異한 民族國家間의 平和共存이 아니라는 點에서

特異하고 複雜한 問題가 介在하고 있음은 말할 必要도 없는데 이 問題가 바로 共產主義의 民族概念인 것이다. 北韓은 바로 이 民族概念을 對南接近에 있어서 正面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政治優先, 平和共存, 民族의 共產主義的 概念에 立脚하여 이른바 自主, 平和, 民族的 團結의 三原則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自由主義的 民族概念이 目的概念인데 對하여 共產主義的 民族概念은 理念上 手段概念이며, 우리는 韓民族을 歷史概念으로 보는데 對하여 그들은 鬪爭概念으로 보는데 問題의 核心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共產主義社會에서 소위 社會主義的 段階 말하자면 푸로레타리아 獨裁時代에는 民族은 푸로레타리아 獨裁에 從屬된 概念인 것이다.

이러한 特殊한 內容을 숨췌하고 있는 民族概念을 純粹한 形態로서 正面에 列擧하고 民族的 團結이란 原則을 내세우고 있다. 이런 民族的 團結의 形式은 民族的이지만 內容은 社會主義的이어서 그 內容에서 본 民族的 團結이란 그들이 말하는 帝國主義 및 그 軍事 力이나 外國軍事基地에 對한 反對, 獨裁專制政治方式의 打倒, 人民에 廣範한 民主主義的 權利 및 自由, 農地改革 및 其外 社會的 改革等等을 위한 民族的 團結인 것이다.

이러한 民族概念 및 民族的 團結의 原則과 그들의 독특한 소위 主体思想이 숨쳐서 自主의 原則이란 것이 나온다.

「우리의 問題는 우리의 손으로 解決해야 한다.」라는 素朴한

表現으로서 局外者에게는 一見 妥當性이 있어 보이는 그들의 이러한 自主의 原則은 실제로는 엄청난 政治的 伏線이 있는 것이다.

이것은 첫째 國際政治的인 面에서 韓國과 同等한 地位의 確保라는 北韓의 一貫되어온 外交政策의 目標을 達成할 수 있다는 点이다. 自主의 原則에 따라 韓國이 그들과 南北統一問題를 協議한다는 것은 北韓에 對한 韓國의 法的承認을 그들의 最終目標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國際社會에서 韓國과 同等한 位置를 갖게 되는 것은 必至의 事實이 될 것이다.

둘째 물론 駐韓美軍의 撤収, 언커크의 解体에 따른 韓國問題와 UN의 分離*를 目標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民族概念과 主体思想이 結合된 소위 自主의 原則(表現이 아니라 内容面에서)은 韓國이 그에 相當한 對價를 받지 않고서는 受諾할 수 없는 政治的인 原則인 것이다.

다음으로 平和共存原則을 들 수 있다. 그들은 平和共存原則과 民族概念을 서로 矛盾되게 宣傳하고 있다. 그들은 南北間의 諸問題를 같은 民族의 問題이기 때문에 制度와 理念을 超越해서 解決해야 한다는 것이다. *理念을 超越한다*라는 表現은 그들에게는 결코 國語辭典的인 意味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自由主義 理念과 調和나 協調를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니며 맑스 레닌主義解釋의 教條主義者건 修正主義者건 間에 스스로 兩理念上의 協調를 말한다는 것은 共產主義思想 그 自体와 背馳되고 있는 것이다.

「理念을 超越한다.」라는 表現은 70年代를 들어서면서 國際政治 構造變化에 따른 戰略으로서 平和的方法에 의한 理念鬭爭을 뜻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平和共存이 갖고 있는 鬭爭概念을 意味하는 것이다. 이러한 그들의 世界認識은 現在대로의 兩体制存在를 認定하고 平和的方法에 의한 理念鬭爭에 있어서 社會主義制度의 勝利를 그들은 確信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南韓에 社會主義制度를 強要하지도 않으며 南韓의 政治制度如何는 南韓國民意思에 달려 있다고 하면서, 思想, 理念, 制度의 差異를 超越, 民族的 大團結을 이룩하여 나라의 自主의 平和統一을 수립하자라는 그들의 主張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平和共存의 鬭爭的性格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自主, 平和, 民族團結의 三原則에 立脚한 그들의 對南 接近은 根本的으로 政治優先原則에 根拠하고 있다.

여기서 人道主義的인 赤十字會談에 임하는 南北韓의 根本的인 態度差異를 볼 수 있다. 그들은 순수한 意味의 人道的인 赤十字會談에는 何等 觀心이 없을 것이며 그것이 政治協商에로의 出發點이란 點에만 注意하고 있을 뿐이다. 離散家族의 結合 乃至 訪問이란 問題가 人道的인 것이 아니라 分斷된 民族의 再結合이 人道的이란 政治觀을 갖고 있다.

이러한 그들의 政治優先概念은 赤十字會談뿐만 아니고 南北調節委員會의 運營에 있어서 큰 困難點을 惹起해 왔음은 勿論이다.

5. 對備策 : 새次元의 統一戰略構圖

가. 基本方向

以上에서 檢討한 대로 南北間의 現時点에서의 緊張緩和에 對한 壓力과 自体間의 戰略目標의 相衝은 새차원의 統一戰略 構圖設定에 있어 必須的인 要素임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現在의 韓半島 情勢가 外的要因과 內的要素間의 相互作用關係속에서 파악해야 할진대 이 要素間의 比重의 問題역시 考慮되지 않을 수 없다.

一般的으로 말해서 南北의 對話와 關聯되는 要素로서 韓半島를 위요한 Asia 情勢와 韓半島 自体의 南·北이라는 세가지의 變數를 들 수 있다. Asia 的 情勢라 함은 韓半島의 統一目標의 외곽범위로서 現 우리의 政策變數로는 統制不可能한 要素이다. 反面에 南·北의 狀況은 統一政策變數로 상정할 수가 있다. 이러한 接近은 韓半島를 自体의 内部 論理—統制 내지 調整可能變數— 와 外部論理—非統制變數— 로 分類하므로써 内部 論理로서 南北韓의 統一政策을, 外部論理로 國際政治의 對 韓半島 需要를 基本要素로 하는 構圖를 設定할 수 있다.

이러한 立場에 서서 4章에서 記述한 대로 極東政治의 方向이 韓半島의 緊張을 緩和시키는 方向으로 進展되는 것이 우선 韓半島統一을 위한 順機能的 要素로서 간주할 수 있다. 勿論 韓半島의 緊張緩和가 極東世界政治의 結果로서가 아니고 주변 強國이 韓半島를 永久分斷할 目的에서 취해진 조치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큰

問題일 수가 없다.

다만 現時点에서 外的인 韓半島의 緊張緩和 壓力이 南北이 平和的으로 統一目標을 追求하는 促進要素 내지 機能要素로 생각할 수 있는 한 韓半島의 緊張이 緩和된 後 세계정치의 對 韓半島의 需要가 永久分斷을 要求한다. 할지라도 問題삼을 必要가 없기 때문이다.

하여튼 南北이 統一目標 — 北韓과 韓國의 接近方向이 正面 대치하는 경우라도 — 를 追求할 수 있는 必要條件으로서 緊張緩和의 方向이 外的으로 갖추어 져야 할 것임이 分明하다.

70年代의 韓半島 주변 狀況은 다음의 4가지 次元에서 韓半島의 緊張緩和를 追求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로는 2차에 걸친 美.中共 共同聲明으로 代表되는 美.中共間의 「데탕트」체제이고, 둘째는 北韓政權의 強力한 背景이 되어온 中共, 蘇聯間의 紛爭. 세째는 日本의 對中共 接近, 네째는 美.日의 同盟體制이다. 이러한 4強國間의 關係는 韓半島의 政治的 意味를 국제적 次元으로 승격시키고 이에 따른 韓半島의 緊張狀態 緩和에 對한 立場에 一致를 희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적어도 이러한 주변 4強國의 關係가 급격한 異變을 수반하지 않는 한 統一을 追求하는 韓半島 外的狀況은 統一促進 機能을 遂行할 것으로 단정지워도 拂리는 아닐 것이다.

나. 統一戰略 構圖

國際情勢가 韓半島의 緊張緩和를 追求하는 方向으로 나아가는

前提위에서 南北間의 關係는 다음 두가지 次元에서 統一接近의 假定을 유도할 수 있다. 첫째로 南北이 正面으로 統一目標와 接近方法이 相峙되는 경우로서 外的인 緊張緩和의 情勢背景에도 不拘하고 南北이 統一을 向한 努力이 中斷되지 않을 수 없는 狀態이고 둘째는 南北이 궁극적으로는 相互의 統一努力을 국제정세적 基盤위에서 相互一致 내지 協助하는 경우이다. 두번째의 경우는 現狀認定이라는 基本的 假定위에서 南北이 국제적인 背景에 追從하는 間만이 雙方이 存立하는 根拠가 되는 狀態를 말한다.

이러한 論理展開의 基本的 根拠는 국제정세의 要因에 南北의 적용이 不可避하다는 전제에서 雙方이 戰略目標의 對峙는 南北間의 對話不在 現象을 招來하므로써 對話 以前의 상태보다 더 緊張을 高潮시키므로써 不可避하게 對話의 手段을 계속치 않을 수 없다고 하는데 있다.

따라서 南北間의 對話體制는 相互의 戰略的 目標가 상치되는 段階에서 이러한 戰略的 目標가 후퇴하고 相互의 便益追求가 우선하는 段階로 轉換할 것이라는 假定이 可能하다. 이것을 整理하면

① 1 段階: 국제정세는 緊張緩和를 추구하고 韓半島內에서는 南北의 統一接近方向이 戰略, 戰術이 對峙되는 段階

② 2 段階: 國際的 緊張緩和 추세가 계속되고 南北이 相互協助하는 段階

이러한 段階的 發展은 基本的으로 破곡점 (break even point) 을 저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指摘할 수 있다. 즉 南北이

戰略目標을 후퇴하고 相互便益을 追求하기 위해서는 國際的인 힘의 關係가 韓半島內的 諸盤問題에 우선해서 公式化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平和條約 체결, 韓半島의 국제적 보장條約등으로서 南北이 自己의 전략적 名分을 후퇴시키는 契機가 되는 點이다.

以上の 對話發展의 과정에서 問題視되는 것은 앞으로의 南北關係 發展過程은 2段階에서의 우위나 2段階 進入의 파극점을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點이다. 쉽게 말하면 첫째로는 南北間의 平和定着 패턴決定을 누구에게 유리하게 하느냐는 것과, 둘째는 새로운 對話에서 누가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느냐는 것으로 이 두가지의 課題는 파극점이 세단계의 南北關係의 方向性을 提示할 수 있다는 點에서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현안 과제로 파악 되어야 한다는 點이다.

× × ×

73년 우리政府의 6.23 宣言은 이러한 方向性을 주도하는데 적절한 措置이다. 따라서 우리 政府가 現時點에서 추가 하여야 할 1次的課題는 6.23 宣言을 具體的으로 發展시키고 이를 實踐하는데 있다고 본다. 이러한 方向性에 따라 南北間의 共存秩序의 패턴이 決定되고 나면 2段階의 對話次元으로 突入할 경우 課題는 交流對策이 될 것이다.

즉 1次的으로 共存 패턴 결정을 위한 方向性 主導를 위한 6.23 宣言의 効率的 實踐, 2次的으로는 共存秩序下에서 交流 推進

을 위한 對策樹立이 現段階 우리 政府의 基本的인 課題가 될 것
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方向이 効率的으로 推進될 수 있을때 現在
政府의 段階的 統一方案, 機能的 統一接近의 可能性에 對한 展望을
점칠 수 있을 것이다.